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vol.33

ZOOM IN

지불되지 않는 그림자 노동

GENDER TALK

코로나 시대의 돌봄과 관계
시민 안녕 위한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요
여성 노인은 갑자기 가난해지지 않는다
직급이 '막내'인 직업

CONTENTS

Zoom-in

지불되지 않는 그림자노동

02



발행인
대전광역시장

발행일
2021년 6월 30일

편집위원
류유선, 권순지, 김순조, 서한나, 이유진

편집
김성곤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디자인·제작
디자인스튜디오203대전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은 대전광역시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연 2회 함께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Issue&View

'여성'과 '빈곤' 키워드에 나타난 연구 흐름은?	10
저임금과 무임금 노동, 위기의 여성 노동자들	14

Gender Talk

코로나 시대의 돌봄과 관계	18
시민 안녕 위한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요	19
여성노인은 갑자기 가난해지지 않는다	20
직급이 '막내'인 직업	21



함께하는 생각

김비겸의 경제 성장기	22
덜 외롭게 더 든든하게	24

문화와 젠더

"관찰아, 너희 닻이아니아"	26
케테 콜비츠- 여성 노동자 그리고 여성 농민을 그리다	29
책 리뷰 - '그림자노동'	33



Deajeon IS U

일상속 '평등 더하기' 로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대전	34
-------------------------------	----



이슈 더하기

제로웨이스트	36
--------	----



지불되지 않는 그림자 노동

코로나 19 이후,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필수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처우나 보상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고 있지 않다. 특히 대면 위주의 서비스 노동이 전면 금지되거나 축소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개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고립 등 사회적 안전망을 상실하고 있다. 서비스분야의 주요 노동자인 여성의 삶은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이지만, 적정한 화폐가치로 계산되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대전 여성 4명을 만났다. 예술가, 방과후 교사, 뷰티샵 운영자, 콜센터 상담사다.



코로나 19 이후 : 스트레스, 버티기, 패닉, 불안정, 생계

류유선 반갑습니다. 본인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저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여성, 가족, 이주와 관련한 소수자, 인권, 차별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선이 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체험수업이라고 하는데 중학생들을 가르쳐요. 쿠키도 만들고, 바리스타 체험이나 공예품만들기 같은 것들이죠. 아이들이 먹는 것 할때 특히 좋아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음식 관련된 수업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거든요.

정수정 카드사 콜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우수 회원의 요청을 해결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소영 대전 서구에서 토털뷰티샵을 운영해요. 피부관리, 왁싱, 속눈썹, 수강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 희 현대마임연구소 '제스튀스' 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연극과 마임을 하고 있고,

6개 대학에서 9년 정도 강의도 했어요. 창의적인 작업을 하고 싶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 게 벌써 20년이 됐네요.

류유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을 만나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해보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더욱이 작년 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은 더 가중됐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전소영 코로나 방역지침에 면적당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어서 한 번에 고객을 많이 받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손님들을 겹치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해요. 게다가 다른 샵에서는 가격을 내리는 상황도 발생하고, 뉴스 보면 착한 건물주도 있다던데 저희 건물주는.... 하하하. 작년에는 혼자했었는데 지금은 직원 2명이 더 생겨서 직원들 월급도 스트레스죠.

정수정 보통 상담 업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고객 100명 중에 1~2명만 이상한 분들이라서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카드사 직접 고용이 아니라 도급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이기 때문에 실적 압박을 받는 게 가장 어렵게 느껴져요. 업체 간 경쟁이 심하거든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작년에 한참 콜센터 집단감염

이 발생했을 때 힘들었어요. 그때 조심해야 할 것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니까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최 희 대전이 문화적으로 척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공연을 못하다보니 더 힘들어지긴 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지만 코로나 전에도 고정된 수입이나 복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환경 속에서 불안을 안고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깨끗하게 활동하는 중이에요.

윤선이 저는 경제적인 문제가 크죠. 당장 일이 없으니까요. 올해부터 다시 조금씩 방과 후 수업을 시작했는데, 지난해 생계가 막막해진 방과 후 교사들이 그 사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각 학교에서는 방과 후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 1년을 버티기 어려웠던거죠. 저도 김밥집에서 일하면서 간신히 버텼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죠.

류유선 일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가 나 자신이 아니라 사회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고용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네요

윤선이 코로나 이전에도 방과 후 교사의 위치는 많이 불안정했어요. 학교 수업들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날짜가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고, 해마다 담당 선생님들이 바뀌니까요. 한 학교에 가서 1년간 수업을 했어도 담당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면 옮긴 학교에서는 방과 후 교실을 안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해마다 내 수입이 얼마나 될까? 라는 불안감도 사라지질 않죠.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니까요. 강사비, 재료비도 10년 전과 변함이 없어요.

최 희 강사비가 놀라운 게 일단 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20~30년 동안 강의한 사람과 갓 시작한 강사의 강사비가 똑같아요. 강의하는 시간만 계산해서 주죠. 강의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것까지 고려해서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해요. 경제적 인문제를 떠나서 오가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등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주면 좋겠어요.

윤선이 코로나 때문에 1인용 키트를 미리 만들어서 주는데요. 진짜 바쁠 때는 밤새워서 준비하고 다음 날 수업 들어가는 데도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은 없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요.

류유선 수업 자료와 재료 준비, 감정노동 등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가 전혀 안되는 게 현실이죠.

전소영 저는 1:1로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데, 코로나 이후 손님이 많이 줄긴 했어요. 매출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고 했죠. 그래서 예약이 뜰할 때를 이용해 기술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또 제 꿈인 저만의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작년부터 대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 희 훌륭하시네요. 저는 공연, 워크숍은 거의 80% 정도 취소가 된 것 같아요. 균형이 깨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단체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만 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내부적으로 회의만 하다 보니 결속력은 더 좋아졌어요.

윤선이 저도 작년에는 패닉상태여서 한 20% 정도밖에 못 한 것 같아요. 올해는 지금까지 한 3~40%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바라도 하면서 버텨내려고 하는데 힘드네요. 방과후 수업은 교육청을 통해 강의를 배정받는 시스템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학교에 직접 영업을 해야 하는데, 과목별로 담당 선생님들께 다 따로따로 카탈로그를 보내야 해요. 요즘에는 그동안 쌓인 인맥이 있어서 조금 편해졌지만 초기에는 각 학교들을 직접 다니면서 영업을 했었죠. 그마저도 지금은 수업이 많이 줄어서 큰 효과는 없지만요.





“
사실 여성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

차별의 경험: 선입견, 불안함, 선택할 수 없는, 화풀이, 미투, 일의 가치

류유선 새로운 질문을 드릴게요. 일을 하면서 성별로 인해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지?

정수정 급여나 승진 부분에서는 없지만 고객에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남자 상담원은 상담을 못하고 불친절하다는 선입견이 있는 편이라 남자 상담원이 마음에 안들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고 끊은 뒤 다시 걸어서 여자 상담원에게 그 불만을 전부 이야기해요.

류유선 여자 상담원이 만만하다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정수정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화풀이하기 쉽다고 느끼나 봐요. 얼마 전 시나 안내방송의 목소리가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은 상냥하다라는 인식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윤선이 상담은 여성이 잘하는 특성이라고 다들 인식을 하니깐 그런 거 같네요. 강사들도 마찬가지로

지예요. 여성들이 많죠. 그런데 사실 여성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인데다 전문적인 지식도 없으니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높이 올라갈 수도 없고, 수입도 적고, 늘 불안함을 가지고 살죠. 한때 백화점에서 오래 일했었는데 갑자기 '매장 빼' 그러면 바로 실직하는 걸 많이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수입이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한부모로 아이들을 키웠는데 불안함을 가지고 대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게 되니까 많이 미안하죠.

류유선 여성 가장으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 오셨을지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술계에도 미투가 많이 나왔잖아요. 마임 분야에서는 어머신가요? 그리고 여성으로서 단체를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힘든 점은 없었나요?

최 희 대다수의 여성들에게 미투는 용기 내기 어려운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더욱이 예술계는 대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얽혀 있어요. 서지는 검사사가 나서서 이야기했지만 그건 서지는 검사였기에 가능했던 것이지 일반인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 반의반이라도 관심을 받았을까요?

류유선 대전은 예술계가 좁기도 하지만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죠. 오랫동안 알고 보아온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이 있죠?

최 희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여성이 한마디 하면 그 부분에 바로 공격이 들어와요. 너무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걸 해명하기보다는 어떤 기준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수위가 매우 높다 싶을 때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만 하시죠'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지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힘과 용기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많이 귀 기울여주고 그 입장에 서봐야만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류유선 전소영님은 사람의 몸을 직접 접촉해야 하는 일인데, 여성으로 이 일을 하면서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전소영 제 일은 "너는 공부 못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다" 라는 인식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받은 상들을 다 전시해놔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요. 손님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하고 마케팅을 할 때도 항상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여성오너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무개념 남성들이 많아요. 퇴폐업소로 생각하고 문의하거나 실제로 방문해서 퇴폐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시술침대 옆에 SOS벨을 설치해놨어요. 직원들에게도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벨 누르는 교육도 시키고 있어요. 실제로 눌러본 적도 한 번 있어요.

류유선 굉장히 위험하네요. 벨을 눌러서 심리적인 도움은 되겠지만 물리적인 도움은 미미하잖아요.

정수정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전소영 그 손님은 도망갔죠. 벨은 손님도 잘 보이지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해놨어요. 간혹 손님이 물어보시면 용도를 설명해드리죠.

내 노동의 현재와 미래

류유선 이제는 두 개 질문을 한 번에 드릴까 합니다. 일을 하면서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고 느껴지는지 그리고 5년 후 내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윤선이 저는 이 일에 만족해요. 5년 후에도 나이가 걸리지 않는다면 계속하고 싶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너무 나이 많은 강사가 오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외모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나이들어 보이면 애들도 싫어하니까요.

정수정 외모와 수업 진행은 관계가 없잖아요.

윤선이 관계 없죠. 그런데 또 너무 젊은 강사들도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컨트롤 하는 것이 미숙하니까요. 보통 40대를 가장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전소영 연륜도 있고 센스도 있는 강사들을 원하면서 일의 가치는 저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웃프(웃기면서 슬프다)네요. 학교 선생님 본인들도 그렇게 평가받는 것은 싫어할텐데요.

윤선이 아이들은 외부강사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에 계약직 선생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외부강사 호칭은 선생님이지만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해서 무시하는 경향도 많아요.

최 희 저희 가볍게 시작해서 무겁게 가는 것 같아요. 하하하. 그런데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정수정 저는 어떻게 해도 예전보다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전 오기 전까지 많이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비정규직이지만 알바할 때보다는 나은 형편이죠. 5년 후에도 같은 직장에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경력이 인정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류유선 우리가 봤을 때 상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당연히 경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력 인정이 안되나요?

정수정 아무래도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2년 정도 경력만 되면 그 이상 전문성을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이후의 경력이 더 인정되지는 않아요.





“
예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공감해주신 것 같았어요.
”



윤선이 고객 응대하는 스킬은 점점 늘어가는 것이거든요. 처음 일하는 사람과 1년 일한 사람 10년 일한 사람은 고객을 응대하는 기술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너무 그걸 인정 안 해줘요.

전소영 자본주의가 그런 거죠. 고객 한명 한명을 내 가족처럼 생각한다면 상담사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안겠죠.

정수정 상담직뿐만 아니라 서비스직 전체에 대한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어요.

류유선 대전은 특히 더 그렇죠. 서비스 업종이 많잖아요. 대전에서 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을 해야 하는 청년이나 여성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술도 정신적 고향이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직이라고 볼 수 있죠?

최 희 네.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공연 요청을 받고 판토마임 공연을 하는데 눈이 좀 어두운 어르신 한 분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 어르신이 외로워서 제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예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공감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술은 정말 나눌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죠.

류유선 선생님은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5년 뒤에서 하고 계실 거죠?

최 희 당연히 가면 갈수록 무르익어야죠. 그런데 한가지, 인내력이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전소영 저는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재밌어요. 결과물이 직관적으로 보이잖아요. 손님들의 만족도에 따라 저도 활력을 받는 시너지도 있고요. 꾸준히 하겠지만 5년 후에는 실무보다는 교육에 더 치중하게 될 것 같아요. 체력이나 외모적으로 뒤처지게 되면 손님이 싫어할 것 같기도 해서요. 시술할 때 젊은 사람들의 감각을 따라가지 못하면 손님들이 저를 점점 찾지 않게 될까 봐 불안함도

있어요.

정수정 미용업계의 활동 생명이 짧은가요?

전소영 물론 60대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 헤어 분야죠. 제가 한번은 일이 굉장히 몰려서 하루에 10명 이상 시술을 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때 '체력관리 안하면 앞으로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교육 분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수정 죄송하네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 못 했어요.

전소영 특히 눈썹 관리 같은 경우 스트레스가 심해요. 집중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왁싱이나 속눈썹도 눈에 힘을 많이 줘야하기 때문에 눈에 부담이 많이 되고요.

윤선이 비즈공예도 진짜 눈이 피곤해요. 점점 구멍이 안보여서 이제는 돋보기 쓰고 해야 해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나에게 일은 (생활), (발판), (인정), (호흡)이다

류유선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인들의 일을 딱 정의하기는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자기 정의는 중요한 것 같아요. 각자 자신의 일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싶은지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세요.

윤선이 저에게 일은 생활이어서 일을 빼놓고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일을 안하면 아이들과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일은 생활이다.

정수정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발판이다.

전소영 나에게 일은 비싼 기술력이다.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 공부도 많이 하고 시간과 돈도 많이 들었거든요.

최 희 갑자기 떠올랐는데 피톤치드 예술은 저한테 호흡과도 같은 존재인데 호흡을 할 때는 정확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일은 피톤치드 같은 것이다.

류유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내 일을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해주면 좋겠는지요? 지역사회가, 내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내 일을 어떻게 평가해주면 좋겠다. 또는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윤선이 사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부모들은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불행한 것 같아

요. 아이한테 공부만 강요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특히 아이들의 성장을 미리 결정해 놓는 거예요. 학교는 어디 가고 유학은 언제 다녀오고 직업은 어떤 걸 해. 까지 다 정해놓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자기 결정을 위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 하는 학교가 많아요.

전소영 아이들의 자기 결정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안하죠.

윤선이 저희가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죠. 학교는 교육청에서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강해요. 저는 아이들이 다양한 걸 해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안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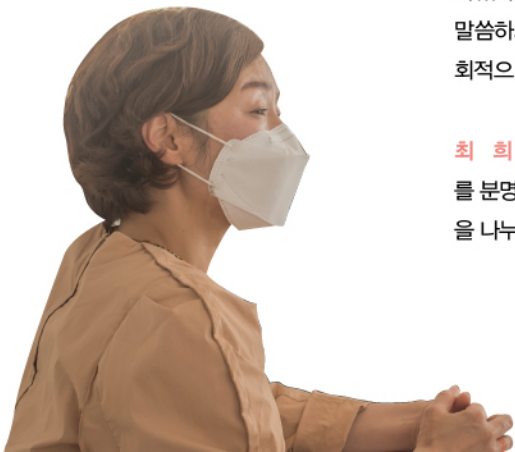
“
 노동에 대한
 존중이 있으면 좋겠어요.
 전문성에 대한 인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



“
 지금은
 ‘야~ 너가 제일 낫다’고
 말씀하세요.
 ”



“
 노동의 이미지가 아니고
 노동으로 인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노동의 가치를 잘 평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수정 저는 고객들이 존중해 줄 때가 많지만 얼굴 안보인다고 함부로 말하는 고객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존중이 있으면 좋겠어요. 전문성에 대한 인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전소영 저도 존중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약제다 보니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긴 하지만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보다 수입도 많아요. 저희 가족이 5명인데 저만 빼고 다 공무원이에요. 저만 이쪽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엔 부모님이 엄청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야~ 너가 제일 낫다’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저도 노력을 하긴 했지만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최 희 문화와 예술은 권리와 향유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일상 안에서 문화예술을 나누는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분야가 좀 다

르고 특수성이 있어도 존중하면서 권리와 향유를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실 청소하는 분들도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철학이 있잖아요. 그분들로 인해 거리가 깨끗해지는데 단순한 이미지 편견은 바뀌어야죠. 직업적인 부분들도 문화 안에서 어우러지는 것인 만큼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고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류유선 좋은 말씀이네요. 노동의 이미지가 아니고 노동으로 인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노동의 가치를 잘 평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삶도 바꾸고, 카드 사용자들의 고충도 해결해주고, 외모를 가꿔주시고, 예술로 마음의 안정을 주시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제가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관리 잘하시면서 본인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들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여성’과 ‘빈곤’ 키워드에 나타난 연구 흐름은?

빈곤과 탈빈곤의 불안정한 경계에서 있는 여성들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빈곤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여성의 빈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친화적 가족, 노동시장, 그리고 사회보장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¹⁾


‘빈곤의 여성화’²⁾는 국제사회에서 1970년대부터 주요 관심 분야로 부각 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제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국내 학술지 논문 중에서 ‘여성’ 과 ‘빈곤’ 을 키워드로 검색한 논문들을 분석하여 연구의 경향 및 주요 대상, 관심사, 제언 등에 대해 살펴 본다.

논문선정기준

논문 검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RISS(www.riss.or.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국내학술논문’ 분야로만 한정하여³⁾ 자료를 수집하였다. 3차에 걸친 분류 과정을 거쳐 최종 220건에 대한 논문을 분류하여 통계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 주의 : 인포그래픽에 사용된 통계는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분류한 것이므로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3차 분류 ● ● ●

2차 필터링 
220 건

- 여성 빈곤의 인식, 현상, 분석, 지원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논문만 선택
- 일부 여성 빈곤의 내용이 담겨 있더라도 주요 논 의 내용이 아닌 경우 제외
- 성별 분리 하지 않은 연구 제외

2차 분류 ● ● ●

1차 필터링 
285 건

- 중복 논문, 토론문, 기자회견, 결의문, 해외 사례분석 등의 논문

1차 분류 ● ● ●

검색 논문 수
784 건

- 키워드 #여성, #빈곤
- 기간: 2000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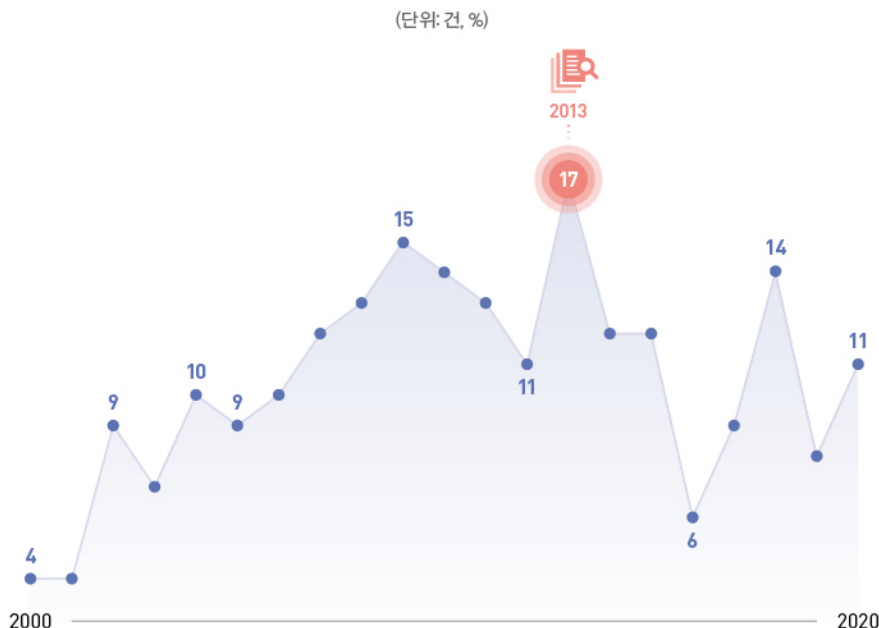
- 1) 박홍주, (2009). 성별화된 빈곤의 현실과 여성의 살아 남기. 황해문화, 64(), 96-122.
- 2) 미국에서 1970년대를 전후하여 빈곤이 급속도로 여성의 문제로 되어 가는 것을 표현한 용어 (Pearce, D. 1978. "The Feminization of Poverty: Women, Work and Welfare."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11: 28-36.)
- 3) 분석의 시간적 한계로 인해 학위논문, 해외학술논문, 단행본, 연구보고서 등의 분야는 제외하였음.

자료출처 : RISS(www.riss.or.kr). 검색된 논문을 직접 분류

'21년, '여성빈곤'의 사회적·지역적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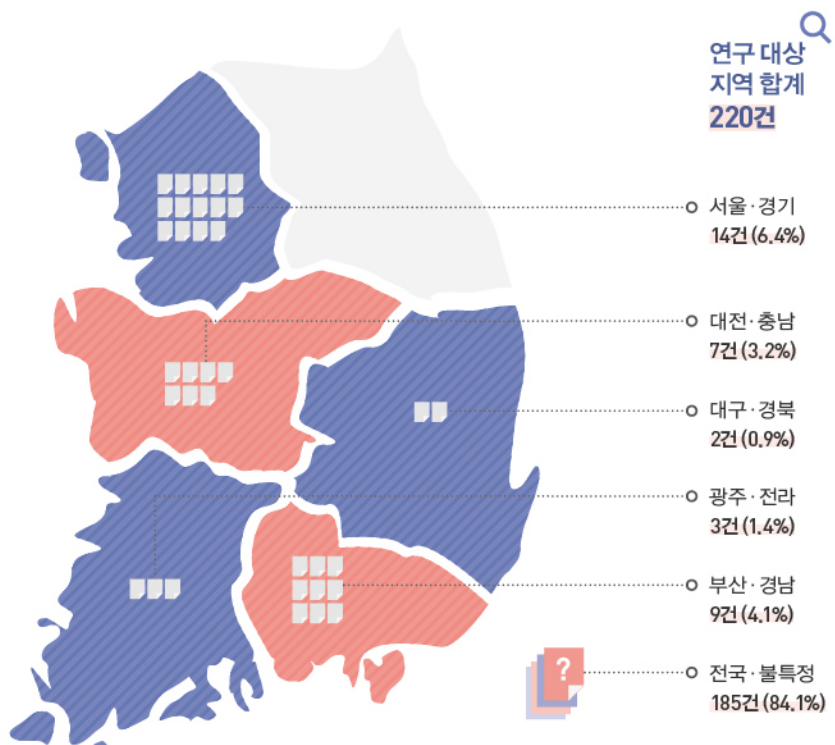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사회적 이슈나 특정 사건은 관련 주제의 논문 발표 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빈곤'은 어느 정도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성'과 '빈곤',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1년간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파악해보았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220건의 논문을 분류한 각 연도별 논문 수는 그림 1과 같다.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된 연도는 2013년(17건)이었고 가장 적은 논문이 발표된 연도는 2000년과 2001년(4건)이었다.

'여성', '빈곤' 키워드로 검색된 국내 학술지 연도별 논문 수 (2000년~2020년)



자료출처 : RISS(www.riss.or.kr), 검색된 논문을 직접 분류

「연도 - 연구 지역」교차분석 (단위: 건, %)



연구자들이 주로 선택한 연구 대상 지역은 '전국' 또는 '불특정 지역'이 220건 중 185건(84.1%)로 가장 많았고 서울·경기 지역이 14건(6.4%), 부산·경남 지역이 9건(4.1%) 대전·충남 7건(3.2%)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구의 특성상 전국 대상 통계 데이터 (패널조사데이터, 통계청 데이터 등)를 활용한 양적 분석 방법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경향이 크지만 분석된 자료만을 보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연구 논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000~2020년 까지의 연구 통계 데이터(5년 단위로 구분)를 활용하였음. 자료출처 : RISS(www.riss.or.kr), 검색된 논문을 직접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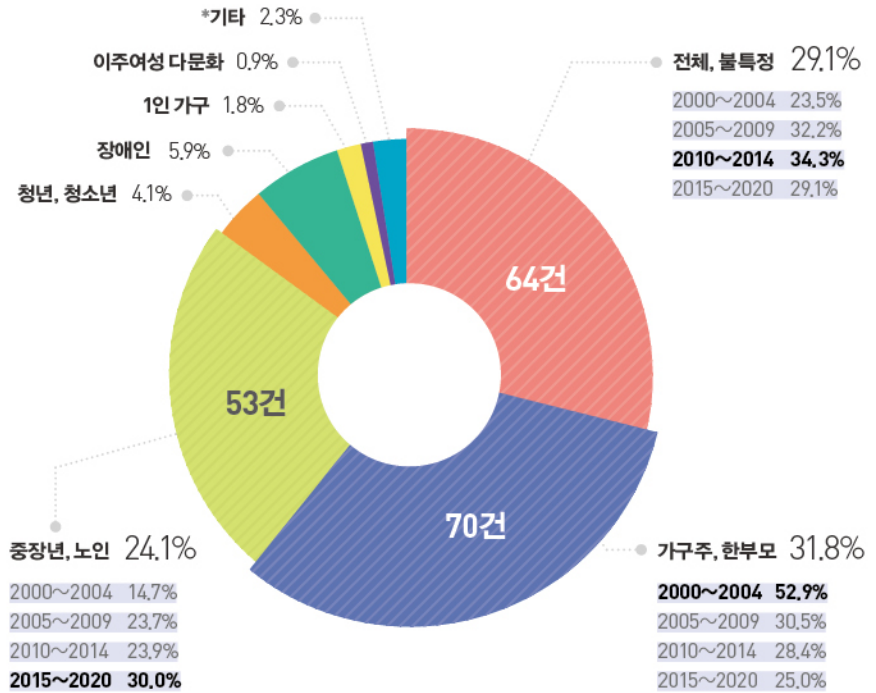
‘여성 빈곤’의 주요 연구 대상은

‘여성 가구주와 한부모’

21년간 연구대상으로 가장 많이 선정된 집단은 ‘여성 가구주, 한부모’ (70건 / 31.8%) 집단이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여성 가구주,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 연구의 52.9%(18건)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이후 ‘중장년, 노인층’과 ‘전체, 불특정’ 집단 대상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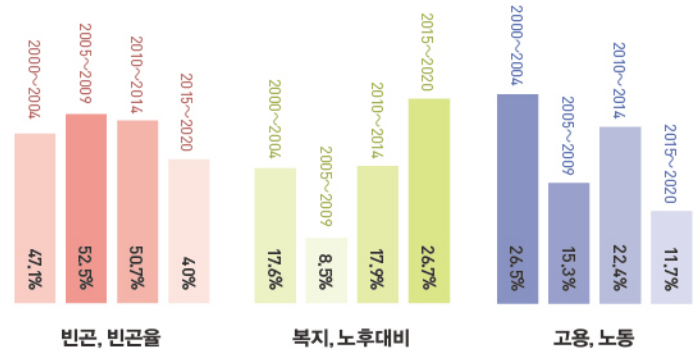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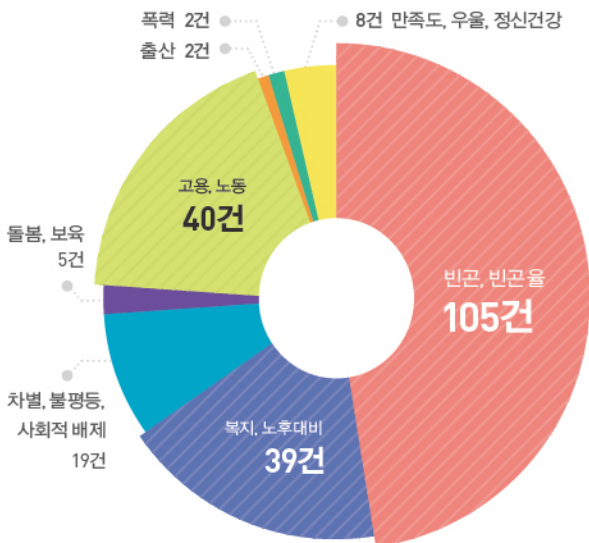
주제별로는 ‘빈곤·빈곤율’을 다룬 주제가 105건으로 47.7%를 차지하였고 ‘고용·노동’ 주제가 40건(18.2%), ‘복지·노후대비’ 주제가 39건(17.7%)로 뒤를 이었다. 5개년 단위로 봤을 때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빈곤·빈곤율’, ‘고용·노동’, ‘복지·노후대비’의 순서가 유지되었으나 2015년부터 ‘복지, 노후대비’ 주제가 ‘고용·복지’ 주제보다 더 많은 논문에서 다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까지 0건이었던 ‘폭력’, ‘출산’ 주제와 3건이었던 ‘만족도·우울·정신건강’ 주제가 2015년 이후 각각 2건, 2건, 5건의 논문에서 주제로 다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연구자의 인식이 ‘여성의 빈곤’ 문제를 단순한 경제적 정책 효과, 또는 노동시장의 문제에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사회불평등 구조와 연관된 원인을 찾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연도-연구 대상」교차분석 (단위: 건, %)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비정규직, 아동
 자료출처: RISS(www.riss.or.kr), 검색된 논문을 직접 분류

「연도-연구 주제」교차분석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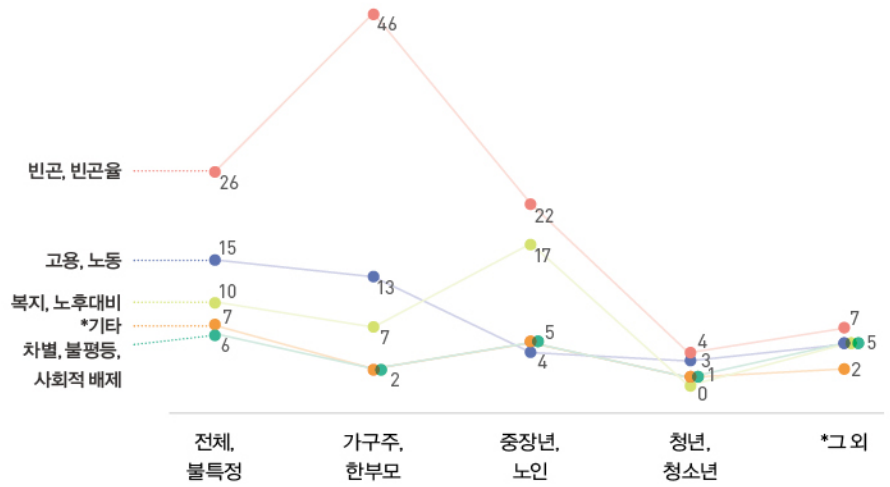
자료출처: RISS(www.riss.or.kr), 검색된 논문을 직접 분류

모두가 풍족한 사회를 위한 방향은?

논문 수가 가장 많은 연구 주제인 '빈곤, 빈곤율'을 다룬 논문에서 주요 연구 대상 집단은 '가구주, 한부모' 집단으로 105건 중 46건(43.8%)이었고, '전체, 불특정' 26건(24.8%), '중장년, 노인' 22건(21.0%) 순이었다. 두 번째로 많이 연구된 '고용, 노동' 주제에서는 '전체, 불특정' 집단이 전체 40건 중 15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가구주, 한부모' 13건(32.5%), '중장년, 노인' 4건(10.0%) 순이었다. 세 번째로 많은 '복지, 노후대비' 주제에서는 '중장년, 노인' 집단이 39건 중 17건(43.6%)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전체, 불특정' 10건(25.6%), '가구주, 한부모' 7건(17.9%)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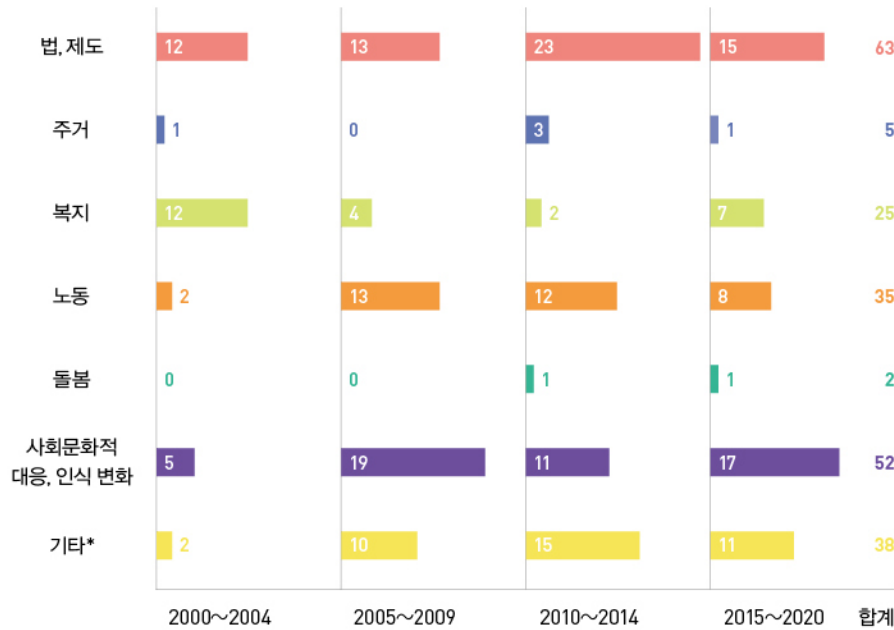


「주제 - 연구대상」교차분석 (단위:건)



*기타: 돌봄, 교육, 폭력, 출산, 만족도, 우울, 정신건강
*그 외: 장애인, 1인가구, 이주여성, 다문화, 기초생활수급자, 비규정규직, 아동
자료출처: RISS(www.riss.or.kr), 검색된 논문을 직접 분류

「연도 - 연구 제언」교차분석 (단위:건)



앞에서 주제와 연구 대상간 편중 현상이 관찰 되기는 하였지만, 연구자의 제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법·제도의' 개선을 주장한 논문이 전체 220건의 논문 중 63건으로 가장 많은 논문 수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2004년의 기간에 비해 2015년~2020년 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p 이상 떨어졌으며, 반대로 '사회문화적 대응 및 인식 변화' 관련 개선을 제언으로 주장한 논문들의 수는 동기간 5건(14.7%)에서 17건(28.3%)으로 13.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w](#)

*기타: 실태조사, 요인분석, 생애사 연구 등 자료출처: RISS(www.riss.or.kr), 검색된 논문을 직접 분류

저임금과 무임금 노동, 위기의 여성 노동자들

홍준기 |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장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에서는 무료노동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개소 이후, 매년 7~8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담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노인, 여성, 청년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50대 중후반이 많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대표되는 여성 노동자들의 삶이 상담 내용에 그대로 드러난다. 몇 건의 상담 사례를 통해,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 수 있을 듯하다.

위기의 여성 노동자 사례 1.

모텔에서 일하셨던 50대 후반의 여성 노동자

“24시간 맞교대 근무에 청소, 빨래, 직원들 식사 준비, 카운터 보기 등 온갖 잡다한 업무는 다 시키면서 임금은 12시간만 계산해서 줬다.”

퇴사 후 체불 임금 상담을 위해 방문한 그녀의 첫마디다. 24시간 중에 거의 쉬는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임금은 절반만 줬다고, 억울하다며 구제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해왔다. 우선 증거자료가 필요하기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 중에 증언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고 찾아보기를 권했다. 하지만 쉽게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오히려 사용자 측에서 직원 하나를 증인으로 세웠다. 일하는 직원이 6명이라고 피해자는 이야기했지만, 증인으로 나온 사측 직원은 4명이라고 했고, 일도 휴게시간이 많았으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확인해보니 직원이 6명이었지만, 4대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4명이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나온 직원은 사장의 친척이라고 했다. 결국 이 분은 체불 임금에 대해 일부만을 확인받았다.

위기의 여성 노동자 사례 2.

어느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

병원에 파견되어 청소 업무를 하고 계셨던 50대 후반의 여성 노동자다. 얼마 전 토요일에 병원 사무장이 엉뚱한 지적을 하길래 뭐라 한마디 했더니, 월요일에 바로 그만두라는 해고 통지를 받았다. 1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억울하다며 찾아 오셨다. 그런데 퇴직금 때문에 임금을 계산하다 보니, 임금이 한참 부족하다. 주 5일 하루 6시간,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 근무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부당 해고와 체불 임금 건으로 노동청에 고발했고 피해자는 노동청에 출석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말씀을 똑부러지게 하지 못하는 분이라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80만 원에 합의를 했다는 거다. 1년 동안 토요일 근무와 퇴직금 계산만 400여만 원이 넘었는데 도대체, 왜? 답답해서 이유를 물어봤다. 사장과 대질 신문을 했는데 샷대질과 욕설에 기가 죽어 그냥 합의를 했다는 거다. 사장이 “아줌마, 내가 언제 토요일 일하라고 했어? 자기가 해 놓고 왜 돈을 달래” 하며 오히려 큰소리치며 몰아세웠다고 했다. 피해자는 거의 대답도 못하고 기가 죽어 사장이 합의하자는 80만 원에 도장을 찍고 나와버렸다.

“ 24시간 중 거의 노는 시간이 없다.”

“ 자발적 무임금 노동 ”

“ 24시간 맞교대 근무에 온갖 잡다한 업무는 다 시키면서 임금은 12시간만 계산해서 줬다...”

위기의 여성노동자사례 3.

평소 일찍 출근하는 여성 요양보호사

항상 아침 출근 시간보다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상 일찍 출근하고 있다는 요양 보호사가 사업주의 횡포에 대해 상담을 하러 오셨다. 상담을 하다보니, 무노동 임금을 하고 있었다. 이 분만이 아니라, 모든 요양 보호사들이 아침 출근 시간을 앞당겨서 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하시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일찍 출근하지 않으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아침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요양 보호사 한 명이 야간에는 어르신 약 15명 이상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야간 요양 보호사 한 명이 어르신들의 아침 식사를 챙기기 힘들어 일찍 출근하여 함께 돕고 있다는 거다. 요양원도 알고 있었고 직원들 모두가 알면서 그렇게 무임금 노동을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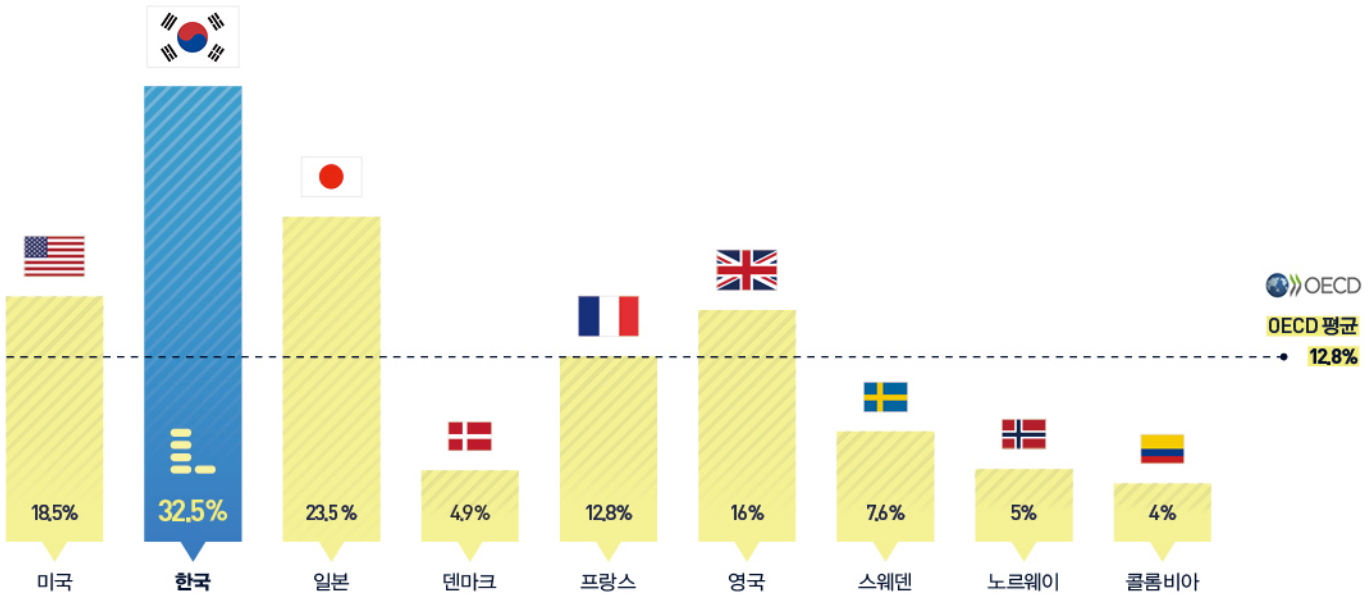
위기의 여성노동자사례 4.

급식시간을 맞추기 위해 무임금 노동을 하는 조리사

불합리한 관리에 불만을 느끼고 상담하러 오셨다. 영양사가 배식부, 조리부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의 제기하는 조리사들을 골탕을 먹인다는 내용이였다. 이것 저것 상담을 하다 보니, 오전 타임일 때,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이상 먼저 나가고 있었다. 300여명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른 아침 조식 시간을 맞추려면 출근 시간을 1시간 이상 당겨야 한다고 한다. 1시간 30분 정도 당기면 그나마 수월해진다며 그렇게 출근을 하고 있었다. “직원들이 힘들고, 일이 많으니까 오래 못 버텨요. 며칠 있다가 그만두니까, 정규인원보다 2-3명이 항상 부족해요. 조식 준비할 때는 몇 사람 안되니 그렇게 일찍 출근을 해야 급식 시간을 맞출 수가 있어요” 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영양사도 알고 있었고, 조리사들이 스스로 무임금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 이였다. 급식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조리사들이 자발적으로,

2019년 국가별 남성대비여성 임금격차



* 2019년 국가별 남성 대비 여성 임금 격차(출처: 경제협력개발기구, 단위 %)

무임금으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

모두 무임금 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사례다. 관례라는 사업주 말에 속아서, 몰라서, 또 현장의 상황이 어쩔 수 없어 자발적으로 무임금 노동을 하고 있었다. 이 여성 노동자들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임금은 커녕 직원으로서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또 다른 무임금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지, 자신도 모르게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모든 무임금 노동의 공통점이 있다. 사업주는 알고 있다는 것. 오히려 사업주는 여성 노동자들의 헌신성, 책임성을 이용하여 무임금 노동을 유도하고 있었고 그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더 가난한 대전지역 여성노동자들, '여성이라서 덜 받습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 임금'. 최저 임금을 받는 여성 노동자들 이야기다. 10년 이상 일한 직원의 월급과 신입 직원의 월급이 똑같은 최저 임금이다.

여성 노동자 중 52%가 비정규직이며 6명 중 5명이 최저임금 영향권이다. 여성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대부분이 최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또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직종에 대한 임금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직종이어도 유독 여성 노동자들은 임금을 덜 받고 있다.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제는 노동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가 임금 격차다.

해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 되면, 여성 노동자들이 '3시 STOP'을 외치고 있다. 평소 같으면 한참 일할 시간이지만 여성의 날을 맞아 3시 STOP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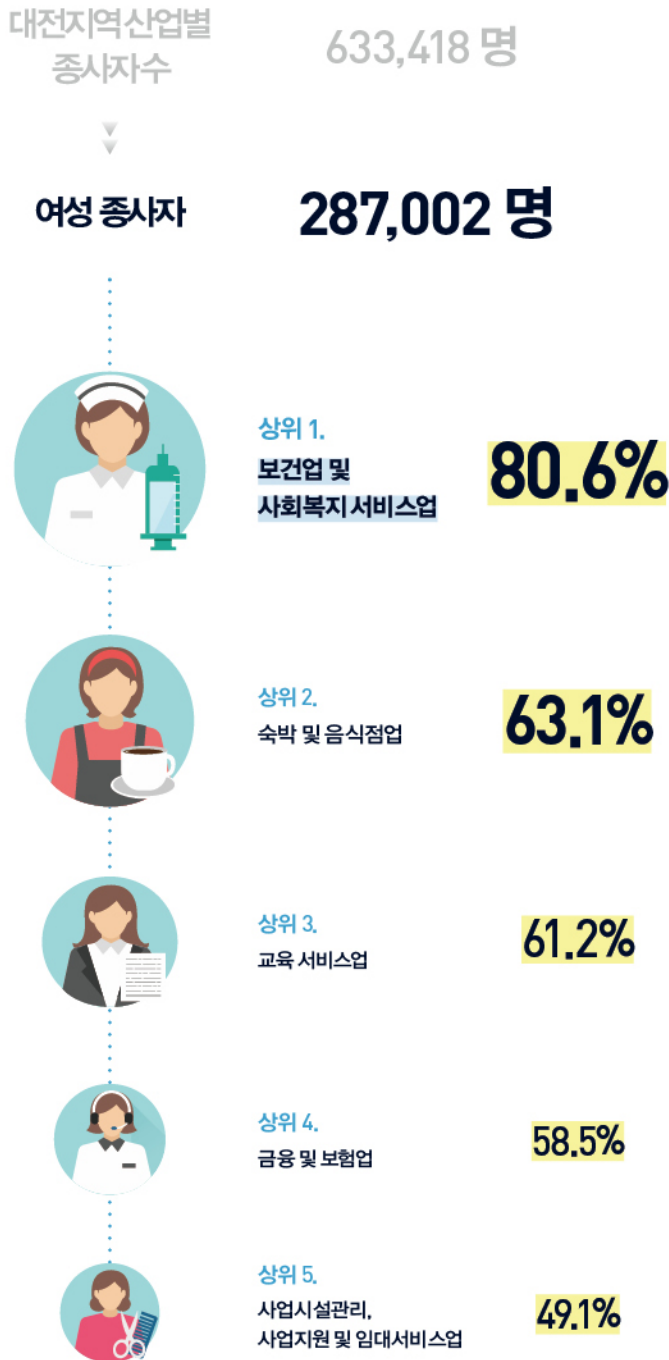
외치는 이유는 남녀간 임금 격차 때문이다. 남성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보다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이 30% 낮기 때문에 3시이후부터는 무임금 노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도대체 우리나라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OECD 국가 중 한국은 남녀 간 임금 격차가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2019년 자료를 보면, 한국이 32.5%, 일본이 23.5%의 남녀 간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많은 격차를 보이는 일본과의 격차도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다. OECD 평균과 대비해 봐도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

2020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업체 특성별 임금 분포현황에 따르면 남성의 평균임금은 48,735 천원이었으며,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9% 수준인 33,737 천원이었다. 위 자료인 2019년 OECD 자료보다는 임금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남녀 임금격차 실태조사」(2017년) 자료를 보면 여성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가사 서비스업'(99.1%),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1.7%), '교육서비스업'(65.0%) 등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성별 임금 격차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6.4%, '교육서비스업'이 28.6%다. 근로자 수가 많아서 평균 임금이 하락된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그 많은 여성 근로자가 남성보다 더 적게 받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대전지역 산업별 종사자 수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전체 종사자 수는 633,418명이고 여성 종사자는 287,002명으로 45.3%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종사자 수 비중이 큰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0.6%), 「숙박

대전지역 여성종사자수 비중 상위 산업



출처: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 보고서, 대전광역시

및 음식점업(63.1%), 「교육서비스업」(61.2%)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직종들의 공통점은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큰 산업이라는 것이다.

즉 대전지역의 여성 노동자들도 남녀 간 임금 격차가 큰 산업에, 더 많이 종사한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이 저임금 산업군에서 일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작년 우리 센터에서 진행한 코로나 19 이후 위기 노동자 실태조사에서 '콜센터 노동자' 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다. 대전지역의 콜센터 노동자들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여성과 비정규직이다. 코로나 19 이후 콜센터 노동자들은 업무량 폭증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 구로 콜센터 집단 코로나 감염 이후, 한 콜센터에서는 갑자기 용역회사별로 분산 이전을 시행해 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였다. 갑자기 마련된 사무실은 칸막이나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도 없었으며 간이의자를 놓고 일하도록 하면서 노동자들의 원성을 샀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업무가 급증하는데 새로운 업무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업무에 투입되면서 악성 민원 발생이 유도되었고 결국 노동자들의 업무스트레스만 배가 되었다. 이로 인해 방광염, 이명, 두통 등으로 건강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권 위협은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일·돌봄·쉼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 결과는 직장에서 가정으로, 다시 사회로 문제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 발생 이후 여성 취업자 수는 2020년 2월 대비 2021년 1월에 5.4%가 줄었다고 한다. 이는 남성 고용률보다 0.9%나 더 떨어진 것이고 반대로 실업률은 남성보다 1.7% 더 오른 수치다. 재난 시기 여성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더 집중되고 있다. 재난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여성들이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부당 노동, 고용 불안의 문제는 여성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었다.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회와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취약한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녀 간 임금 격차의 해소, 일·돌봄·쉼의 균형,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우선 필요하다. 남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동일임금, 동일노동'이다. 남녀차별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위해서도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다. 또 노동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직종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보육, 간병 등 돌봄과 서비스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적절한 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난한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여성 노동자가 존중되는 건강한 일터가 노동이 존중되고, 건강한 일터다.


코로나 시대의 돌봄과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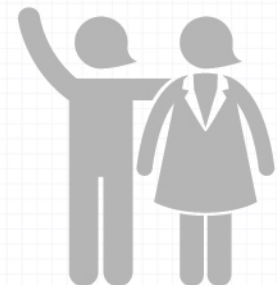
권순지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편집위원

전날 비가 내려 축축한 공기가 다 가라앉지 않은 날씨의 토요일이었다. 현관 문 앞엔 포장된 빵과 죽이 담긴 종이봉투 두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급히 오느라 가쁜 숨을 가다듬고 그것들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핑 돌았다. 당장 내게 필요한 것들, 그것들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도 따뜻했고 단정했다. 순간, 현관문 너머 아이들 노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정신없이 비밀 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몸을 들이자 햇살이 얼굴로 웃으며 나를 반기는 아이들의 존재가 성큼 다가와 나를 안았다. 나는 내 몸에 달라붙어 배고프다는 말부터 하는 아이들을 한 손으로 엉거주춤 감싸는 동시에, 집 앞에 있던 종이봉투를 다른 한 손으로 움켜쥐고 그렇게 잠깐 서 있었다.

그날의 모든 상황은 갑작스레 닥친 위기의 결과였다. 봄날 기온이 변덕을 부리는 탓에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온 작은 아이를 한 살 터울인 큰아이에게 부탁하고 주말에 해야 할 강의를 하고 온 날. 그날은 원래 두 아이를 일터에 데려갈 참이었다. 아이들을 동반해도 괜찮은 환경과 배려가 있는 일터였기에 가능한 계획이었다. 예측하지 못한 변수는 그날이 오기 전날 밤에 등장했다. 38도가 넘도록 열이 나는 작은 아이를 밤새 돌보며 다음 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수백 번 시뮬레이션 했다. 발열 증세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외부 장소에 나간다는 것은 감염병 재난 시대에 범법 행위로 여겨질 만한 일이며, 또한 그것은 아픈 아이에게도 미안한 일이었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해열제를 먹고 잠을 푹 잔 아이의 건강 상태가 미약하게나마 호전 증세를 보이는 점이었다. 37.8도, 37.6도, 그렇게 아이의 열은 다음 날까지 조금씩 내렸다. 그러나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인 '체온 37.5도 이상'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강의에 데려간다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갑자기 아픈 아이를 돌봐달라고 편하게 부탁할만한 어느 한 사람도 떠올릴 수 없었다. 코로나19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간 맺은 관계들을 부정하게 했다. 발열 증세가 있다는 것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확률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아무리 가까운 관계조차 돌봄을 부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의 내 선택은 아홉 살 큰아이를 믿고 의지하는 방법이었다. 체온계와 해열제를 식탁 위에 꺼내 두고, 동생의 열을 수시로 체크하여 38도가 넘어가면 이만큼의 해열제를 먹여 달라고, 그리고 해열제를 먹고도 열이 내리지 않으면 엄마에게 문자를 하라고. 전화는 바로 받을 수 없을 테니 꼭 문자를 보내야 한다고 말이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대략 네 시간.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일이었으나 그래도 아이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 시대의 절망은 관계의 단절이 당연해지는 현실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관심 두게 된 지역 사회 공적 돌봄의 끈은 매우 연약했고, 더욱이 내겐 잡히지 않는 끈이었다. 그나마 의지하고 있던 몇 안 되는 사적 관계조차 아이가 아프면 잡아서 안 되는 끈이 되었다. 그날 나를 울게 한 종이봉투 속 선물은 내 상황을 알아버린 지인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였고, 나는 그래서 그날을 더 잊을 수 없게 되었다. 



시민 안녕 위한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요

대전시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 임미정 주무관

김순조_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편집위원



“남편도 요리에 지쳤는지 냉동식품 좀 주문해달라고 하네요.”

대전시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새내기 공무원 임미정 주무관은 지난 3월 말부터 귀가 시간이 더욱 늦어져 거의 자정 무렵 퇴근한다. 초등학생 남매의 육아와 집안일 등을 도맡게 된 임 주무관의 남편이 드디어 힘에 부치는지 하소연 겸 부탁을 해왔다.

“거의 한 달 동안 아이들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요. 아침 시간 잠깐 보는 게 다였죠. 큰아이가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다가 울더라고요. 아이도 엄마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이 상황이 많이 힘드나 봐요.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이야기를 전하는 임 주무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더 이어지면 금방 눈물을 쏟아낼 거 같다.

유형업소를 시작으로 학원과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3월 말부터 임 주무관을 비롯한 대책본부 요원들은 더욱 바빠졌다. 이들은 확진자 역학조사로 접촉자를 가려내고 검진 대상자 명단을 추리는 한편, 확진자 이송과 병상 확보 등, 대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 끝날 듯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총성 없는 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본부 사무실의 불은 늘 자정이 지나서야 꺼진다. 때로는 불이 꺼지지


않은 채 새벽을 맞이하기도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진들에 대한 격려는 쏟아지지만 정작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공무원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거나 관심도 없다.

본부 근무 전, 초등 4학년과 2학년 남매의 어머니인 임 주무관의 일상은 가족들 아침을 챙기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 후 또 가족들 저녁 챙기고 숙제 돌봐주다 잠이 드는 어느 워킹맘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월 방역본부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임 주무관은 야근이 일상이 된 삶을 살고 있다. 주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일상이 이어진다.

임 주무관은 하루 확진자 수 통계 등을 알리는 코로나19 일보 작성, 접촉자 검사 상황 체크, 병상 배정 보조 업무 등을 한다. 접촉자 검진 결과가 나와야 하루 일과가 마무리된다.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마음은 늘 불편하다. 장시간 일을 하는 것은 물론 힘들지만 하는 일이 뭐 있냐는 시민들의 민원전화를 받을 때, 못 살겠다며 집합 금지를 풀어달라는 상인들의 하소연을 들을 때 더욱 빠진다고 한다. “확진자 한 사람이 생겨도 전파를 막기 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면 위에서 편안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 숨없이 물질하는 오리 아시죠? 그게 꼭 제 모습 같아요.”

아직 시보(試補)도 떼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대책 본부에 투입돼 처음엔 실수도 많았다는 임 주무관은 그나마 방역반원들의 끈끈한 팀워크와 시민을 위해 큰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이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다.

“긍정적인 점도 있죠. 우리 집에서 양성평등이 확실하게 이뤄졌어요. 그동안 엄마가 도맡아 하던 보육과 요리 등 집안 살림을 아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코로나19가 준 뜻밖의 선물(?)이다. 코로나19가 준 선물은 또 있다. 새내기 공무원 임 주무관이 방역 전문 공무원으로서 단단한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상하기 싫지만 언젠가 그녀가 야근을 밥먹듯 하면서 배운 방역 노하우는 대전시 보건의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다. 

여성 노인은 갑자기 가난해지지 않는다

서한나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편집위원

“벌이는 식당이 훨씬 좋지만, 식당 일은 하루만 해도 손목이 시큰거려서 못 해요.”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2020년 지인의 소개로 요양보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경희(가명) 씨(62세)의 이야기다. 그는 네 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나 15세가 되던 무렵 먼지가 풀풀 날리는 가발 공장에 취업했고, 오빠와 동생의 학비를 보태느라 자신의 학업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었다. 첫 번째 일터에서 폐 질환을 얻은 경희 씨는 그 뒤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일했다. 50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그간 고생시킨 몸이 자신에게 시위라도 하는 것처럼 이곳저곳이 쑤시고 아프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노동을 멈출 수 없었다. 15세부터 지금까지 줄곧, 가장이었기 때문이다.

여성 노인은 갑자기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다. 청년 시기 여성이 겪는 고용 불평등과 임금차별, 전문성 확보가 불가능한 비정규 계약직 일자리 등에 전전하게 되는 구조는 여성 노인 빈곤을 필연적으로 예고한다. 전문직이 아닌 젊은 여성은 전문직이 아닌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탓에 자산을 축적하기 어렵고, 비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자 살아가는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누리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개인차가 있겠으나 그나마 육체노동이 가능한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식당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간다. 그러나 매일 숨 가쁘게 이어지는 노동에 몸이 상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빈곤한 중장년 여성이 노후 대책을 위한



새로운 직업으로 요양보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체력과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결론이 되었다.

요양보호 서비스는 크게 시설에 어르신이 입소하는 시설 서비스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집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서비스 둘로 나뉜다. 일자리 공고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가입해서 수시로 접속할 수 있는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구직하는 요양보호사가 공고를 보고 조건이 맞으면 전화연락을 취해 면접시간을 정하고 합격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 과정이 항상 매끄러운 것은 아니다. 답이 제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마냥 전화를 기다리게 되고, 면접시간 한 시간 전에 취소 통보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터에서 요양보호사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힘들다. 서비스 받는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고조치를 당한다. 단순변심 또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일도 있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다른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어 다시 네이버 밴드의 공고를 뒤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좋은 어르신을 만나는 것도 모두 개인의 운에 달렸다. “집에 파스가 없어 졌다. 반지가 없어 졌다”며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반찬을 해달라거나 가족의 옷을 세탁하고 가라는 등의 추가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여성 요양보호사에게 가사 일을 떠넘기는 것은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황당한 풍경이다.

돌봄노동은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고 강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가정 내에서 여성이 무급으로 노동해왔다는 이유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노동은 여성화된다. 여성이 다수인 직업군(간호, 간병, 유아교육, 요양보호사 등)은 대체로 노동 환경과 처우 개선이 더디고, 노동강도가 높으며 임금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노동강도에 비해 턱없이 적은 임금, 미래를 가늠할 수 없이 불안정한 노동 환경이 그들에게 권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일까?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안전한 일자리를 중장년, 노년 여성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일까? [W](#)

직급이 '막내'인 직업

이유진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편집위원



두 달 일하고 25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 지역 방송국 다큐멘터리 프리뷰 일이었다. PD가 촬영한 영상을 받아 그 영상의 모든 풍경과 대화를 받아 적었다. 편집 이전의 영상이라서 1시간 정도의 영상을 3~4개씩 받았고 두 달 동안 약 52개 프리뷰를 했다. 내가 해본 아르바이트 중 가장 힘들었다고 할 수

는 없지만, 보통 영상분량 3~4배의 시간이 걸리는 프리뷰 작업 특성상 시간 대비 가장 적은 돈을 받았다. 방송이 나가야 알바비를 준다고 해서 한 달 조금 넘게 기다리다가 돈을 받았다. 만약 방송이 취소됐다면 돈을 받지 못했을 거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걸 직업으로 해도 괜찮은 걸까?'

"그냥 일주일치 짐 싸서 캐리어 끌고 출근하는 거야."

"사원증 발급이 안 돼서 매일 1층에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받았어."

"지역 방송국은 그냥 없는 경력이라고 생각해. 거기서 일하고 서울로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진짜..."

"하고 싶으면 빨리해봐. 그래야 빨리 그만두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다른 일을 찾지."

방송작가를 했거나, 하고 있는 언니들의 이야기다.

방송작가는 기획, 출연자 섭외, 사전취재, 사전 촬영, 촬영 구성안 작성, 편집 구성안 작성, 자막 작성, 내레이션 대본 작성 등 방송의 전 과정에 참여한다. 그 외에도 주차나 커피 준비 등 출연자 의전부터 출연료 정산 등 일부 행정적인 업무까지 작가의 몫이다. 아니, 작가의 일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잡다한 일은 다 해야 해서 작가가 아닌 '잡가'라며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방송작가 유니온에 따르면, 전국의 방송작가는 약 2만 명이며, 94.6%는 여성¹⁾이다. 그러나 정규직은 TBS(교통방송)에서 일하는 10명뿐이다. 정규직 비율은 0.05%,²⁾ 거의 모든 방송작가는 프리랜서고 야근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다. 가장 바쁠 때는 1회 평균 20시

간³⁾ 정도 일을 하지만 야근수당은 없고 새벽에 퇴근할 때 타는 택시비도 본인이 부담한다. 특히 막내작가라고 불리는 5년 미만 작가의 연평균 소득은 1,593.2만 원이며, 이는 월 130만 원 정도다. 지역방송작가들의 처우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의 경우 방송작가협회와 KBS, MBC, SBS 구성작가협회가 각 방송사와 원고료 협의를 한다. 그러나 지역방송사는 원고료 책정에 대한 논의 구조가 없다. 막내작가의 36%는 100만 원 이하, 36%는 100~15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몇 년간 경력을 쌓아 메인작가로 승진해도 150~200만 원을 받는 비율이 38%로 가장 많다.⁴⁾ 여전히 채용공고에는 '프리랜서, 회당 99만원 지급, 3팀 로테이션 제작'이 올라온다.⁵⁾ 3주에 99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만약 한 회차라도 결방되는 경우에는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된다.

2020년 MBC는 보도국에서 개편을 명목으로 10년간 근무하던 작가 두 명을 전화 한 통으로 해고했다. 흔한 일이었지만 이번엔 작가들이 방송계의 잘못된 관행에 맞서기로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으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판정 요청을 했고, 2021년 3월 19일 '초심 취소'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의 변화는 더디고 방송작가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던 TBS도 다시 막내작가를 프리랜서로 고용한다. 지금도 막내작가들은 밤을 새우거나 주말 출근을 하고, 연락이 오면 어디서든 일을 하기 위해 노트북을 챙긴다. 정해진 직급 없이 1인 체제로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지역방송작가들도 있다. MBC는 보도국 작가 2명을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작가의 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W](#)

1) 방송작가 유니온, 방송작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 맵 '선영이를 부탁해'

2) 프란(PRAN), '99%가 비정규직인 이상한 직업'

3) 1회 최장 노동시간, 교양작가 22시간, 예능작가 18.9시간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

4) 2018 방송작가 유니온 지역방송작가 실태조사 보고서

5) 미디어잡, [0000] 프로그램 담당작가 채용공고 (2020)

김비캠의 경제 성장기

대전 비혼 여성커뮤니티
'비혼후캠' 경제 소모임

권사랑 | 대전 여성주의 잡지 'BOSHU'



김비캠

#28세 #여성 #대전 중구 거주

#입사 1년 차 #사회 초년생

#입사와 동시에 통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본가에서 나와 1.5룸 전세로 이사



비혼 후 캠: 대전 유일비혼 여성 커뮤니티.
대전 페미니스트 문화기획자 그룹 BOSHU가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커뮤니티로,
현재 백 명에 가까운 대전비혼 여성들이 함께하고 있다.

*본 내용은 '비혼 후 캠'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사례 및 후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DATE. 2020. 3. 20.

회사 근처로 이사했다. 엄마는 비혼을 결심한 내가 여전히 못마땅한 모양이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여자 혼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했다. 지금이야 괜찮지만 늙어서 혼자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할 거냐고. 내가 알아서 한다며 호언장담했지만, 불안감이 드는 건 사실이다. 어제는 여성 노인 빈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오늘은 1.5룸 전세방도 감사하지만... 언젠가 나만의 집을 구할 수 있을까?

03

메가 트렌드(1)
2000 Dot-com Bubble

- 90년대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
- 일렉트로닉에 대한 기대
- 닷컴 회사들의 기술, 영업 전략 전무
- 증권사와 벤처 캐피탈의 몰락
- 기준금리 상승

5,048
Mar 2000

Dotcom bubble
▼78%

1,114
Oct 2002



DATE. 2020. 7. 16.

지난 달 비혼후캠에 가입했다. 많은 분들이 소개글에 요즘의 관심사가 '경제'라고 남겨놓으신 걸 보았었는데, 오늘 최비혼님께서 경제모임 (여.다.경: 여자가 다해먹는 경제)를 시작한다고 글을 남겨주셨다. 경제 모임에서는 코스피 지수 매일 체크하기, 경제 기사 공유하기, 자기 전내가 쓴 영수증 체크하기 등 매일 자신의 경제 습관을 체크하고 함께 경제 지식을 쌓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진다고한다.

코스피가 뭔지도 잘 모르고, 돈 쓸 때도 생각 없이 지출해와서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함께 돈 얘기를 할 수 있는 비혼 여성들이 생겨서 기쁘다.

DATE. 2020. 8. 20.

소모임에 참여한 지 한 달이 되었다. 그간 재미없고 어렵다고 생각한 경제 뉴스를 (억지로라도) 보게 되니 꽤 가까워진 것 같다. 매주 좋은 소비와 나쁜 소비를 체크하니 배달 음식이나 게임 현실처럼 쓸데없는 지출을 점점 줄여가고 있고, 최비훈님의 압박(?) 덕분에 가게부를 처음으로 써봤다. 내 돈의 흐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이제서야 어떤 뜻인지 알 것 같다. 덮어놓고 쓰다 보니 불안했던 마음이 줄어들었다. 가끔 비훈후캠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왜 그렇게 과소비를 하나고 서로 잔소리를 한다.



DATE. 2020. 9. 24.

오늘은 주식 초보 특강을 들었다. 주식 특강은 비훈 여성 경제 커뮤니티 COW의 운영자 박현아님께서 해주셨는데, 현아님께서 해주신 "돈의 힘을 길러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급히 써야 하는 돈에는 힘이 없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에만 힘이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며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힘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그간 20대의 여성이 돈을 모은다고 하면 흔히 결혼 자금으로 여겨지는 등 그 여성만의 자산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혹은 어차피 결혼할 것이니(여성인 남성의 자산으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그전까지 돈을 모을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의 말도 보았다. 이런 사회에서 비훈 여성들은 자신만의 자산을 쌓는 방법을 스스로 구축해나가고 있다. 여성이 결혼하지 않고는 자신만의 집과 자신만의 차를 가질 수 없는 사회에서 우리는 돈의 힘을 길러보려 한다. 혼자서가 아니라, 비훈 여성들이 모여 함께. 이것은 혁명이다.

DATE. 2021. 3. 28.

1월과 3월에는 현아님의 2, 3차 주식 강의가 이어졌다. 투자를 시작하고 나니 그전까지는 남의 이야기 같았던 경제 기사들도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살피는 것이 조금 더 재밌어졌다고 해야 하나. 코로나 19로 인해 여성들이 직격타를 맞았고 나 역시 불안을 느꼈지만, '사회의 흐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흐름에 탑승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2021. 4. 18.

5월부터 진행되는 투자 3개월 프로그램 <비캠코인>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로맨스에 기반한 여성과 남성의 결합만이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가족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든지, 남들과는 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든지, 혈연으로 묶인 '가족' 밖에서 일어나는 경제의 흐름은 모두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을 상상하고, 실현할 시기다. 나는 비훈후캠 사람들과 다 함께 건물을 '사서' 함께 '사는' 삶을 꿈꾼다. w

덜 외롭게 - 더 든든하게.

신지혜 | 뉴그라운드 Co-Founder

NEWGROUND

여성들의 커리어 상호 성장 커뮤니티 '뉴그라운드'
홈페이지 www.ournewground.com
인스타그램 @newground_official

뉴그라운드는 여성주의적관점을 바탕으로 말과글 기반의 콘텐츠를 만드는 황효진과 여성의 일에 관한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한 필자가 2021년 3월에 공동창업한 여성들의 커리어 상호성장 커뮤니티다. 많은 여성과 일에 관한 건강한 관점을 구축하고, 함께 새로운 일 이야기를 만들고 알리고 싶어서 '뉴그라운드'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게 되었다.

효진님과 같은 회사에서 동료로 만난 사이다. 우리가 일하던 회사는 일하는 밀레니얼 여성을 위한 곳이었다. 오프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로 창업한 회사였고, 2020년 코로나19를 겪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로 전환하고 운영했지만, 코로나 19를 통과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2020년 12월 함께 일하던 회사의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우리는 이직을 할지 새로운 일을 만들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쯤 '코로나19로 20대 여성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고, 각자의 일을 넘어서 여성의 일과 관련된 사회적 상황을 같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

뉴그라운드는 여성들의 새로운 일 이야기를 통해서 단단하고 넓은 판을 구축하려고 한다.

”



이제 막 일을 하기 위해 진입하는 20대 여성들보다 일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필자와 효진님은 일하며 알게 된 업무 및 협업에 필요한 태도와 일하며 가져야 하는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여성이 처한 상황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과 마음이 겹쳐서 함께 회사를 만들게 되었다.

뉴그라운드스의 키워드는 '여성'과 '일' 그리고 '기록'이다. 프로그램은 시즌별로 운영되며, 현재는 시즌 1을 마무리하고 시즌 2를 모집하고 있다.

시즌 동안 운영하는 기본 프로그램은 '내 한 주 동안의 일'을 매주 뉴그라운드스에서 만든 질문에 답하고 기록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다. 서로에게 유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피드백을 나눌 수 있도록 '1~3년 차', '4~6년 차', '7년 차이 상', '프리랜서'로 나눠서 운영한다. 그 외에도 일에 관한 주제를 잡아서 글을 쓰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자기의 아이디어로 모임을 기획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지난 3월 오픈한 시즌 1에 꽤 많은 여성이 함께 해주었다. 일은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영역이지만 쉽게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마음 한쪽에 '언젠가는 내 일을 잘 정리해야지.'라는 불편함만 갖고 있었는데, 이 기획에 마음을 다잡고 일을 나의 언어로 정리하려는 분들이 무척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시즌 1을 마무리하고 받은 피드백들 중에서 "일을 기록하며 일하는 나의 주체성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말이 기억난다. 기록을 통해서 일의 중심에 자신을 두게 되었다는 말에 오히려 내가 더 큰 힘을 얻었다.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피드백이 힘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었지만, 실제로 "각자의 자리에서 굴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해내는 여성들이 마음으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참 따뜻하고 빛이 났다.", "모든 피드백을 오랫동안 가만히 보게 된다." 등과 같은 생생한 후기를 보면

참여해준 많은 여성들에게 보다 덜 외롭게 일할 수 있게 된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 준 건가 싶기도 해서 뿌듯했다.

왜 일을 기록해야 할까? 왜 서로 지지해야 할까? 일의 역사는 여성의 일을 중심으로 쓰여진 적이 없다. 많은 커리어 이론은 남성들의 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여성은 언제든지 일도 돌봄 노동도 해내야 하는 사람으로 일의 결을 맴도는 사람의 역사로 기록되어왔다. 현재 뉴그라운드에서 일을 기록하는 분들은 조직에 속한 일뿐 아니라 자기의 프로젝트도 함께 적는다.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는 일들을 처리하는 나를 중심에 두고 적는 것이다. 일의 역사는 일하는 우리 모두의 기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돌봄 노동에 대한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서로의 일에 관한 공감과 지지 없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분투하며 일하고 있는 여성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하는 노력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봐주는 동료가 있다면 그 미약한 연결이 마음의 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로의 연결로 일을 만들 수도 있다. 처음부터 튼튼한 연결일 수는 없을 것이지만 조금씩 있다 보면 언젠가는 단단하고 드넓은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뉴그라운드스는 여성들의 새로운 일 이야기를 통해서 단단하고 넓은 판을 구축하려고 한다. 시즌 1을 겨우 마친 뉴그라운드지만, 시즌을 거듭할수록 더 많은 여성이 이곳에서 일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나의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게 되기를 바란다. 뉴그라운드를 만들기 시작할 때 만난 여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질문과 욕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다운 일을 앞으로도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어떤 방향으로 확장될지 그려지지 않아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일을 꾸려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러한 고민과 막막함에 혼자 답하기는 어렵다. 함께일 때 덜 외롭고 더 든든하게 새로운 일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이다. 



황혜진
뉴그라운드스 팀원



신지혜
뉴그라운드스 Co-founder

“괜찮아, 너희 탓이 아니야”

일해도 가난한, 일하지 못해 더 가난한 여성들의 이야기
영화 <노매드랜드>와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속 여성

지나라 | 스토리콘텐츠 말·글 대표

미국과 영국. 현대 자본주의와 부를 상징하는 이들 나라의 가난은 어떤 모습으로 개인의 일상을 잠식하고 파괴할까요? 그리고 이들 나라의 사회적 약자는 가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싸울까요? 클로이 자오 감독의 <노매드랜드(Nomadland), 2020>와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 2016>는 각각 다른 시선과 방법으로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영화입니다. 특히 모든 것을 잃고 유목민의 삶을 선택한 노년의 편(노매드)과 당장 복지수당을 받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극단적 상황에 처하는 케이티(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일해도 가난한, 일하지 못해 더 가난한 여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영화 <노매드랜드>의 한 장면.





영화 <노매드랜드>의 주인공 편.

“

영화에서 커피와 스파게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끈끈한 연대의 상징이자, “어찌 됐든 살아 보겠다”는 조용한 다짐인 셈입니다.

”

☘ 그들이 집을 뺏기고 일자리를 잃었을 때

때론 일하고 싶어 노매드(Nomad·유목민)의 삶을 선택한 것일까요, 노매드의 삶을 살고 싶어 일을 놓지 않는 걸까요? 주인공 편(프란시스 맥도먼드)은 남편이 죽자 낡은 밴을 타고 떠도는 ‘길 위의 삶’을 선택합니다. 편이 살던 미국 네바다주의 소도시 엠파이어는 석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쇠락합니다. 한때 사무직과 교사로 일했던 편은 아마존 물류센터, 공장, 식당, 캠핑장 등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죠. 정착해서 함께 삶을 살자는 주변의 권유를 물리치고, 노년의 편은 플랫폼 노동자로, 노매드로 살아갑니다. 202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여우주연상, 감독상 등 3관왕을 차지한 영화 <노매드랜드> 이야기입니다.

과연 편에게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플랫폼 노동자로 일을 하는 것도, 밴을 타고 이곳저곳을 떠도는 유목민을 삶을 사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때는 2011년, 장소는 다름 아닌 미국의 소도시였으니까요. 그때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2008년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했던 일명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Loan)’ 사태가 터졌습니다. 초저금리 대출로 주택을 샀던 사람들은 부동산 버블이 꺼지자 집을 빼앗기고 거리로 쫓겨납니다. 설상가상으로 다니던 직장마저 경제위기로 문을 닫죠.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가 유일했던 중산층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영화는 그 이후,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앵글에 담았습니다.

편을 비롯한 영화 속 등장인물(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노매드의 삶을 사는 실존 인물이라고)은 빈곤층이 아닙니다. 한때는 편처럼 사무직 노동자였고, 평범한 중산층이죠. 이들은 밴이나 트레일러에서 잠을 자고, 저임금 일용직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유목민의 삶을 살게 됩니다. 편은 가난해서 일하지만, 일해도 가난합니다. 예고된 가난한 삶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기보다 춥고 배고프지만 인간다운 삶을 찾아 길로 나서게 됩니다. 노숙자의 삶 대신 유목민의 삶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죽고, 공장이 문을 닫고, 도시가 쇠락한 것은 편에게 운명이었지만, 일용직 노동자로 길 위의 삶을 살게 된 것은 편만의 선택이었습니다.

☘ 복지제도가 싱글맘을 대하는 태도

가난해서 일해야 하는, 일해도 여전히 가난한 여성은 또 있습니다. <나, 다이엘 블레이크>의 케이티입니다. 케이티는 당장 생계와 두 아이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싱글맘입니다. 케이티를 알려면 이 영화의 주인공 다이엘 블레이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영화의 배경은 2016년 영국. 1979년 보수당의 대처가 집권하면서 복지정책과 노동자는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내몰립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다이엘 블레이크는 59세의 은퇴한 노동자인데요. 실업수당을 받으면 의료수당을 받을 수 없고, 의료수당을 받으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복지제도의 모순, 불합리한 경제 시스템, 권위적인 관료주의에 의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됩니다.



영화 <나, 다이엘 블레이크>의 한 장면.

이런 다니엘과 20대 싱글맘 케이티는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기관에서 우연히 만납니다.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복지수당을 당장 신청할 수 없다는 관료에 맞서 항의하다 다니엘과 케이티는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다니엘도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만, 케이티의 딱한 사정을 들은 다니엘은 그녀의 집까지 짐을 들어주고, 집을 수리해줍니다. 케이티는 다니엘이 아이들까지 돌봐주는 덕분에 구직활동에 나서게 되는데요. 하지만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싱글맘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가난해서 일해야 하지만, 일할 곳이 없어 더 가난한 케이티. 영화는 굶주린 케이티가 맨손으로 통조림을 허겁지겁 먹다 오열하는 장면을 통해 약자속의 약자가 누구인지를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 그녀가 권한 커피, 혹은 스파게티

두 영화에서 등장하는 편과 케이티가 비루하고 비참한 것만은 아닙니다. <노매드랜드>에서는 몸조차 제대로 편하게 누울 수 없는 비좁고 낡은 밴이지만, 편이 그곳에서 커피를 끓여 나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 다이엘 블레이크>에서 케이티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다니엘에게 스파게티를 대접합니다. 영화에서 커피와 스파게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끈끈한 연대의 상징이자, “어찌 됐든 살아 보겠다”는 조용한 다짐인 셈입니다. 맨손으로 통조림을 먹다가 오열하는 케이티에게 다니엘은 어깨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네 탓이 아니야.”

영화 <노매드랜드>와 <나, 다이엘 블레이크>는 일해도 가난한, 혹은 일하지 못해 가난한 여주인공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너희 탓이 아니야.” w



영화 <나, 다이엘 블레이크>의 케이티와 다니엘.

케테 콜비츠- 여성 노동자 그리고 여성 농민을 그리다

김인희 | 인문학 강사, 프리랜서

빈곤과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은 여성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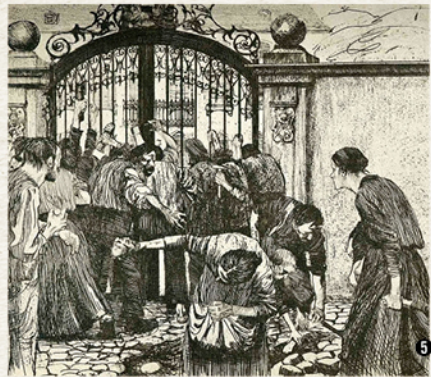
1893년의 어느 날 화가 케테 콜비츠(1867~1945)는 '1844년 쉐레지엔 직조공들의 봉기'를 극화한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의 연극 <직조공들>(1892)을 관람했다. 사회의 불안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당국의 검열에 걸리는 바람에 이 연극은 곧 극장가에서 자취를 감추었지만(이후 하우프트만은 191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 그 강렬한 이미지는 콜비츠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난 반세기 전에 터진 대규모 노동자들의 폭동이 이제 막 등단한 젊은 화가의 눈길을 끈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 연극이 어린 시절부터 콜비츠가 관심을 기울여온 빈곤과 노동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산층의 유복한 가정 출신이었던 콜비츠는 어려서부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아마도 조부모 시절부터 내려오는 집안 내력도 분명 영향이 있었겠지만(콜비츠의 외조부는 자유개혁교회의 목회자였고 부친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법률가 출신 건축가였다 남편은 빈민구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예술가의 창작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는 콜비츠 개인에게 무엇보다도 각별한 주제였음이 틀림이 없다. 콜비츠는 동시대의 여성 미술가들 대부분이 풍경이나 정물 혹은 가족들을 그리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시절에, 빈곤과 노동 그리고 전쟁 같은 사회성이 짙은 소재들에 파고들었고, 필요하다면 정치적인 활동도 과감히 할 정도로 현실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었다. 그런 그가 1898년 베를린에서 열린 제국미술전에 출품한 작품이 바로 판화로 된 <직조공들의 봉기> 연작이었다.



자화상, 1910년, 종이에묵탄, 케테 콜비츠 미술관

'훈장과 휘장은 공로가 있는 남자들의 가슴에 달려야 한다'는 이유로 시상에서 제외되다

물론 이 작품은 연극 그대로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어린이 이나 여성들이 굶어 죽어 갔지만 그런 참혹한 장면이 연극에 나오지는 않는다. 특히 무장 봉기 장면 역시 대사로 처리될 뿐이었지만 콜비츠는 강렬한 시각 언어로 이 고통스러운 장면을 상당히 생동감 있게 그려내었다. 무엇보다도 관객의 시선을 끄는 것은 장면 하나하나가 갖는 서사와 역동성이다. 당시 역사화들이 마치 연극 무대와 같은 경직된 화면 연출과 현란한 색상으로 권위적인 장엄함만 추구하던 시절에 콜비츠는 단지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회색의 무채색 선만으로 압도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화가 막스 리베르만(1847~1935)은 콜비츠의 작품에 감동 받아 다른 심사위원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황제와 문화부 장관에게 그녀의 작품에 최고 메달을 수여할 것을 추천하기도 했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다. 황제 빌헬름 2세는 '훈장과 휘장은 공로가 있는 남자들의 가슴에 달려야 한다'며 리베르만의 제안을 거절했다. 여성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훈장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얘기였다. 문화부장관은 좀 더 정치적인 거절 사유를 들었는데, 콜비츠의 이전작들이 이미 정부의 상연금지 조치를 받은 불온 연극을 주제로 만든 점을 지적했다. '예술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화해하는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다'면서 이 작품들은 너무 '선동적'이라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결국 콜비츠는 최고 메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화가로서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된다)



- ① 직조공들의 봉기, 1898년 작, 쾰른의 케테 콜비츠 미술관, 첫번째 - 빈곤
- ② 직조공들의 봉기, 두번째 - 죽음
- ③ 직조공들의 봉기, 세번째 - 모의
- ④ 직조공들의 봉기, 네번째 - 행진
- ⑤ 직조공들의 봉기, 다섯번째 - 폭동
- ⑥ 직조공들의 봉기, 여섯번째 - 결말

“

역사에서 농민의 아내, 아니면
노동자의 아내였던 여성이
‘여성 농민’과 ‘여성 노동자’가 되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

여성노동자와여성농민을역사의주역으로그리다
선동적 성향과(작품에서 거침없이 자신의 주장을 설파하는 것) 여성이라는 것, 이 두 가지는 이후 케테 콜비츠의 예술 세계를 지배하는 주요 테마가 된다. 언제나 사회성 짙고 정치성이 강한 주제를 선택하면서도 콜비츠는 자신이 그리는 이미지의 주역에 항상 여성을 중심에 두는 걸 잊지 않았다. 연작 <직조공들의 봉기>에서 봉기를 모의하는 것은 남성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행진을 하고 바닥의 돌을 깨서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의 중심으로 그려진 것은 여성 노동자들이다.(이러한 기초는 이후에 제작된 콜비츠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 이어진다)

콜비츠가 <직조공들의 봉기>에 이어서 1902~8년에 제작한 <농민전쟁> 연작도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그린 것인데(작품 소재로 노동자들의 반란에 이어 농민들의 반란을 선택한 점에서 콜비츠의 일관적인 주제 의식을 알 수 있다) 이번 작품은 문학이 아닌 역사책에 기반해서 그려졌다. 1843년에 출간된 빌헬름 짐머만의 <대농민전쟁사개설>을 바탕으로 엥겔스가 농민전쟁을 분석한 글을 마르크스가 간행한 잡지에 기고하였는데, 그 글을 토대로 1870년 다시 단행본으로 <농민전쟁사>가 출간되었다. 케테 콜비츠는 이 책을 통해서 독일의 중세를 끝장낸 화려한 르네상스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고, 과거(1524~25년), 독일 전역에서 일어났던 농민들의 혁명의 열기에 매혹되었다.(짐머만과 엥겔스는 실패로 끝난 그 농민반란을 시간의 기억 속에서

꼬집어내어 독일 역사의 위대한 한 순간으로 기록하였다) 콜비츠는 훗날 회상하기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작품을 그렸다고 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역사의 냉정한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역사에 자신의 내면을 투영해서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화폭에 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비츠는 당시 유행하던 역사화의 공식들에는(이 시절 역사화를 그릴 때 집중할 것은 그 시대의 건축이나 의복 같은 소품의 정밀한 고증들이었다)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는 관람자에게 마치 그 반란이 수백 년 전에 있었던 먼 시간 속의 일 이 아닌, 당장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효과를 주기 위해 의도된 것이었다.

장엄한 패배자를 그리다

콜비츠에게 농민전쟁은 한 여인의 이미지로 뚜렷하게 각인이 되었는데, 당시 농민군들 사이에서 ‘검은 안나’로 불려졌던 익명의 농민 여성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사실 콜비츠는 그녀로부터 영감을 얻어 농민전쟁 연작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위력적인 선동가였다고 역사에 기록된 여인 ‘검은 안나’는, 영주와 기사들이 이끄는 무장한 용병대 앞에서 농민군을 독려했고 그녀가 나서서 입장 연설을 하면 농민군은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스스로 앞을 나아갔다고 전한다.

그러나 콜비츠는 봉기에 따른 댓가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짐머만을 비롯한 많은 역사학자들이 봉기 진압 후의 참상을 생생하게 증언해주었기 때문이다. 굳이 역사책을 찾아볼 것도 없이 이미 콜비츠 스스로 직접 접했던 몇

농민전쟁-포르들(1908년)





몇 바리케이트 봉기의 참상에 대한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에 그녀는 농민들의 봉기와 희생을 마냥 성스럽게만 그릴 수가 없었다.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1830)에서 작품 도상의 기본적인 영감을 얻었지만 콜비츠가 그리는 농민군은 자유의 여신이 이끄는 '승리한 시민군'이 아니었다. 결국 그들은 패배하고 영주와 기사들의 발밑에 깔려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 패배의 역사적 기록에서 콜비츠는 과연 어떤 시각적 언어로 이들을 기릴 것인가? 그녀가 그린 여러 이미지들 - 아버지와 아들로 보이는 두 남자가 가축대신 쟁기를 끌고 밭을 가는 모습 - 인간 존엄의 마지막 보루인 직립보행까지 박탈당한 농민들의 처참한 상황이나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농민 여성의 시신은 권력이 저지르는 폭력에 공분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에 맞서 결연히 낫을 가는 안나와 단결하여 전진하는 농민군의 행진에 관람자들은 다시금 숙연해진다. 콜비츠는 언제나 정공법을 택했는데 그것은 메마르면서도 고통을 건디는 인간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것이었다. 그 시절 농민들이 권력자의 무서움을 과연 몰랐을까? 왜 어떤 인간들은 죽음의 절벽이 눈앞에 보이는 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달려 나가는 걸까? 콜비츠는 이에 답하는 의미로 존엄을 위해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인간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그려내었고 그 주인공으로 여성을 그렸다. 역사에서 농민의 아내, 아니면 노동자의 아내였던 여성이 '여성 농민'과 '여성 노동자'가 되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콜비츠의 노고는 응답을 받았다. 연작 판화집 <농민전쟁>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심지어는 보수적인 회원들로 구성된 미술가 협회인 '역사적 예술을 위한 연합'의 인정도 받았다. 그리고 프로이센 미술 아카데미의 정식 교수로 위촉되기도 했다. 지난 시절 (독일)제국 체제에서 콜비츠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메달 수여조차 거부되는 것이 미술계의 현실이었는데 새로 들어선 (바이마르)공화국 체제에서는 미술 아카데미의 정식 회원이 된 것이다. 불안정하나마 이제 여성도 독립적인 한 사람의 미술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일까? [w](#)

- ① 농민전쟁 - 봉기(1899년)
- ② 농민전쟁 - 진격(검은 안나) 1902년, 안나는 농민전쟁의 주역들 중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몇 안되는 여성 농민이다
- ③ 농민전쟁 - 쟁기질(1907년), 영주에게 세금으로 가축을 빼앗긴 농부들이 직접 쟁기를 몸에 메어 끌고 있다
- ④ 농민전쟁 - 회랑의 결전(1906년)

임금으로 지불되는 노동과 인정으로 보상받는
자존과 자립을 위한 노동

그 둘 사이의 이름 없는 그림자 노동

문지동 브론테

『그림자노동』 이반 일리치(2002) 박흥규 옮김, 도서출판 미토

코로나 19 팬데믹은 생산, 발전, 성장, 자본 중심의 사회 담론을 재생산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여성의 책임 혹은 저임금 노동으로 치부되던 간병, 양육, 배달 등 대면 서비스 노동이 일상 유지의 필수노동으로 인정받으면서 이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가사노동, 자녀 양육과 교육, 부모 돌봄 등도 빠르게 돌봄산업, 가사서비스업, 교육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여성이 책임지도록 요구되었던 재생산영역, 한 개인의 출산과 성장뿐만 아니라 세대를 연결하는 사회 재생산의 상품화가 공공성의 이름 혹은 형태로 퍼지고 있다. 인간을 돌보고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활동들이 상품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화폐로 산정되지 않는 영역, 시간, 활동, 실천들이 있다.

이름이 없는 이런 노동을 이반 일리치는 “화폐화된 영역으로부터는 독립되면서도,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활동과 거래”로 규정하면서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로 부른다. 시장경제가 확대될수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고 활동하되 보이지 않는 활동으로 이뤄진 영역이다. 자본주의 사회 유지를 위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노동이지만 이런 노동에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다. 그는 “여성이 가정이나 아파트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가사, 쇼핑에 관계되는 여러 활동, 집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위하여 주입식으로 공부하는 것, 직장을 왔다갔다 하는 통근에 드는 수고(153p)”뿐만 아니라 “강제된 소비의 스트레스, 치료자에 대한 지겹고도 규격화된 종속, 관료에 대한 맹종, 강제된 업무를 위한 준비(153p)” 등을 화폐로 측정되지 않는 활동이라고 설명한다. 개인의 생존, 사회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노동을 인간 생활의 자립과 자존의 활동과 임금노동으로 나눈다면 그림자 노동은 이 두 영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것들을 뒷받침하는 필요노동이다.

이반 일리치의 오래된 책을 소환하는 이유는 무임금이기 때문에 소홀히 여겨지는, 그러나 일상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여러 활동과 노동을 ‘필요한 노동’이라고 호명하기 때문이다. 쉽게는 통근시간이 노동을 위해 집을 나서는 시점이라는 관점 같은 것들이다. 남성노동자를 기준으로 구성된 노동의 개념과 범주, 노동자의 이미지, 노동시장 구조에서 여성의 주변성 뿐만 아니라 임금노동의 주변에서 이름 없이 대가없이 행해지는 노동에서 그림자를 지울 필요가 있다.

책은 내가, 동료가, 가족이 행하는 돈이 안되는 활동들이 나에게, 가족에게,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W](#)





일상 속 ‘평등 더하기’로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대전

함께 성장하는 대전

숨겨온 당신의 능력! 이제는 보여주세요!

대전시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켜 다양한 분야에 양성 평등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인재를 모집하고 있다.

대전 여성인재 DB시스템은 공공 및 민간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진 여성뿐만 아니라, 지역 거점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여성 580여명을 발굴하여 각종 교육정보 제공 및 시 정책 안내를 통하여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여성이 지역의인재로서 지속 성장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대전에 거주하거나 대전 출신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은 누구나 대전여성인재DB에 등록할 수 있으며, 모든 분야 전반에 걸쳐 가능하다.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내 「대전여성인재DB 메뉴」에서 등록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자신의 전문영역, 활동 사항 등을 직접 등록하면 된다.

등록 자격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정책담당관 성인지팀(☎ 270-3161)으로 문의하면 되며, 여성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성평등한 대전실현과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여성리더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1 이제는 양성평등교육도 생애주기에 맞춰서 해드립니다

대전시는 작년부터 생애주기를 고려한 양성평등 교육을 유아, 초등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전인 영유아와 초등학생에게 일상 속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내용이 담긴 그림책으로 '나다움'을 배우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여성가족원, 한밭도서관과 함께 양성한 제1기 양성평등 큐레이터를 하반기부터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신청기관에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지속적인 교육과 대상 확대를 위하여 제2기 양성평등 큐레이터 기본과정을 여성가족원 대전미래여성아카데미 강좌로 개설할 예정(9월)이다.

또한 교육청과도 협력하여,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과 성인 대상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였다. 초등학교는 고학년년을 대상으로 참여형 수업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서 평등의 감각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3~5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365 여성취업넷'만 기억하세요



대전시는 3월부터 여성 구직자의 취업과 기업 채용을 지원하고자 '대전광역시 365 여성취업넷'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취업 상담과 화상면접 기술을 도입한 온라인시스템으로 각종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채용 과정도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으니 대전시 여성구직자는 지금 바로 이용을 추천한다.

#3 시민참여 디지털 성범죄감시단 운영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은 특성상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막대한 만큼 초기 피해 구제가 중요하다. 대전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연계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시민감시단은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50세 이하의 시민 6명으로 구성되며, 시민이 직접 디지털 환경을 감시하면서 유해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민감 사항인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사이버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신고한다.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유해한 정보에는 불법촬영물, 사진합성물, 성적괴롭힘, 유포협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초등·중학생 학부모 10명이 주체가 되어 초등·중학생이 처한 디지털 성범죄 취약지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성범죄 학부모 데이터 수집단'도 별도 운영한다. 감시단이 직접 자녀, 학부모들과 소통하면서 유해한 디지털 환경을 파악·기록하여 데이터화 한다.

시민감시단과 학부모감시단은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온·오프라인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제로 웨이스트



겨울은 짧아졌고,
 벚꽃이 빨리 폈다.
 이번 여름은 작년보다 길게 덥고,
 가을은 짧아질 것이다.
 일회용품은 편리하다.
 그러나 편리함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결과가 환경파괴와
 기후위기라면 이제 불편함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때가 아닐까.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런 공간에
 한번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넷제로 공판장

글·윤소원_한남대학교 사진·이유진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편집위원

우리는 한정된 정보 속에서 '주어진 소비'만 하며 결국 저렴한 가격으로 누군가의 노동력을, 그리고 자연을 착취하는 데 익숙했다. 그러나 이제 일상에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실천하며 나의 소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전 대덕구 미호동 '넷제로 공판장'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지혜롭게 소비하는 공간이다. '넷제로 공판장'은 그저 물건을 판매하기만 하는 곳이 아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공판장을 찾아온 사람들이 앉아서 머무르고, 먹고, 이야기하는 곳이다. 그렇게 작은 대화, 일상의 변화가 쌓이면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넷제로 공판장'에는 '미호지기'가 있다. 처음 방문하는 사람도 편안하게 제로웨이스트 상품들을 접하고, 궁금한 점은 미호지기에게 물어볼 수 있다. 흔들면 계면활성제로 변하는 천연 세제인 무환자 열매(소프넛), 세탁용 비누인 '꽃마리 과탄산소다솥', 발달장애인 고용과 환경 보호의 가치를 추구하는 '동구밭'의 삼푸바와 가꿈비누 등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상품도 미호지기의 설명과 함께라면 반짝반짝 새롭게 보인다. 공판장에서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제로웨이스트 상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며,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을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넷제로 공판장'은 온라인 판매 없이 오프라인 판매만을 고집한다. 아무리 친환경 포장을 하더라도 결국 불필요한 자원을 추가적으로 소비하게 되고, 택배 노동자의 노동력을 저렴하게 착취하는 데 일조하지 않기 위해서다. 인터넷으로 쉽게 '친환경'을 소비하고자 하는 것도 변화해야 한다는 미호지기의 신념이다. 굳이 미호동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주변에 더 가까운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있다면 그곳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는 미호지기.

편리함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조금은 낯설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넷제로 공판장'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넷제로 공판장의 상징물.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C 높아지면 지구는 스스로 뜨거워지기 시작한다.



미호동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515 ⌚ 화-일요일 09:30~18:00 (월, 공휴일휴무) 📷 @miho_haeyou

카페 자양분

글·이유진

카페는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든다. 그런 공간에서 서로 접점이 없던 사람들이 모여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어떨까? 카페 자양분은 동네 주민들과 제로플라스틱을 위해 '작당모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카페 자양분에서는 분리수거가 어려운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오면 지정된 가게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코인을 주는 프로젝트 '플라스틱 샵니다'를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자들은 플라스틱의 종류에 대해 배우며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줄일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이따금 열리는 마수세미 뜨기 워크숍 등의 행사에서는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각자의 삶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방법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카페의 한쪽에 있는 한증상점을 구경하는 동안, 플라스틱을 잔뜩 든 할머니가 들어오셨다. 소재도, 모양과 크기도 다양한 플라스틱을 거침없이 분류하고 종류와 재활용에 관해 설명하는 카페지기가 멋진, 카페 자양분이었다.

자양동, 대동자원순환 프로젝트 '플라스틱 샵니다'

1. 모으기

- 한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실리콘, 고무 등 다른 재질과 섞이지 않은 HDPE, LDPE, PP, PS)을 모아 세척하고, 같은 재질끼리 분류한다.
- 투명 페트병의 뚜껑은 수집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팔기

- 모은 플라스틱을 '자양분'에 가져온다.
- 작은 플라스틱 10개를 코인 1개(1,000원)로 교환한다.



3. 코인 사용하기

- 자양동, 대동의 마을가게 7곳에서 코인을 사용한다.
- ① 하늘상점 ② 카페 조각구름 ③ 구모카페 ④ 밀소리
⑤ 머물다가게 ⑥ 카페 사소한 ⑦ 카페 자양분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59 1층 🕒 평일 13:00~19:00(주말, 공휴일 휴무), 수요일은 21시까지 운영
 📷 @jayang_boon

한중상점

글·이유진

한중상점은 제로웨이스트 상점이다. 특이한 점은 별도의 가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카페나 서점 한쪽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가까운 곳에서 제로웨이스트 물품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한중상점의 가장 큰 장점이다. 온라인에서 제로웨이스트 물품을 구매하던 사람들은 불필요한 택배 포장이나 택배비 없이 한중상점에 들를 수 있고, 제로웨이스트가 뭔지 모르던 사람들도 한중상점을 통해 우연히 제로웨이스트 물품을 접할 수 있다.

한중상점의 제로웨이스트 물품들은 대부분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칫솔, 치약과 같은 구강용품, 대화용 빨대나 세척솔 등의 음료용품, 샴푸바와 비누망 등의 목욕용품, 친환경 수세미나 주방비누, 오가닉 행주 등의 주방용품은 누구나 사용하는 일상용품이라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레스(less)웨이스트부터 제로(zero)웨이스트까지 발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한중상점은 세러데이 커피, 이도저도, 자양분, 다다르다에서 만날 수 있다.



한중상점

LESS WASTE POP-UP STORE

1. 구강용품 키트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키트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면 구강 용품과 물건의 형태는 같지만, 플라스틱이 아닌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키트는 제로 웨이스트 입문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

2. 음료용품 키트
플라스틱 빨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빨대 키트!
재사용이 가능한 빨대를 사용함으로써 일회용 빨대 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 :)

3. 목욕용품 키트
수질 오염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비누 형태의 목욕용품!
비누알을 함께 사용하면 작은 비누 조각까지 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 :)

4. 주방용품 키트
주방에서 나오는 일회용품과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는 천연 재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알맞음을 통해 일회용 냅의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친환경 천연 수세미와 오가닉 행주를 사용함으로써 미세 플라스틱 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 :)

세러데이 커피
☞ 서구 한밭대로 745 1층
🕒 09:00~18:00 (주말 휴무)

이도저도
☞ 유성구 신성로 62번길 15
🕒 평일 11:30~20:00 (목 휴무)
🕒 주말 12:00~20:00

자양분
☞ 동구 동대전로 159 1층
🕒 13:00~19:00 (주말 휴무)

다다르다
☞ 중구 중교로 73번길 6
🕒 12:00~20:00 (화 휴무)

여긴 쉽게 버려지지 않을 물건들이 있어요

인터뷰
은영상점

글 · 권순지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편집위원

불필요한 물건을 줄여나가는 일상의 반복을 통해 '버려지는 것들'을 다시 보게 된 두 여성이 있다. 버린 물건을 돌아보며 알게 된 것이 있었다. 어떤 존재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인류 생활 전반이 재편되면서 그들은 더욱 알 수 있게 되었다. '버려지는 것들'의 미래가 곧 자신들의 미래이기도 하다는 것을. 감염병 재난이 변화시킨 인간 삶에 대한 고민은,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전제하에 놓여야 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그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다.

대전 유성구 궁동에 위치한 '은영상점'은 다르게 살기 위한 그들의 공동 일터이다. 더는 '버려지는 것들'을 생산하지 않기 위한 그들의 용기와 신념이 꿈틀대는 공간이다. 기후 위기와 감염병 재난을 통과하는 시대, 건강한 순환을 시도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샵 '은영상점'의 김나현, 이선화 공동대표를 만났다.

Q | 은영상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 은영상점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성 제품이 아닌, 더 오래 쓸 수 있는 다회성 제품을 판매한다. 또한 용기를 직접 가져와서 세제를 담아갈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뜨개 제품, 도자기 제품 등 은영상점이 자체 제작한 물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필요한 물건은 직접 만들고, 불필요한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자원 순환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Q | 운영상점의 주 소비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다.

A | 거의 90%가 여성이다. 대학가에 있지만 대학생들보다는 그 윗세대 여성들이 더 많이 오는 편이다. 대전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오는 분들도 많다. 요즘은 우리 세대 젊은 층이 제로웨이스트 문화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고민이 있다. 사실 상점을 처음 만들 때부터 그런 바람이 있었다. 대학가에 자리 잡은 것도 그 이유다.

Q | 주 소비자가 여성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A | 최근 여성들이 윤리적 소비의 주체적 행위자로 나서는 현상을 다룬 강연도 들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공감의 문제라는 판단을 자꾸 하게 된다. 이 사회가 보통 여자들에게 공감 능력을 더 요구하지 않나. 물론 개인적 차이도 있겠지만 공감 학습에 대한 젠더적 차이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환경 문제는 지구 전체나 생명을 향한 공감이 필요한 문제다.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공감이 필요한 것이다. 환경을 신경 쓴다는 것은 굉장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자기 이외의 주변까지 시선을 확장할 수 있는 공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운영하는 주체도 대부분 여성이다.

Q | 운영상점을 자주 찾는 분들과 함께하는 활동이나 모임이 있는지 궁금하다.

A | 줍깅을 하고 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조깅하는 모임이다. 주로 유성구 공동, 어은동 골목이나 갑천에서 활동한다. 다섯 명의 멤버로 시작했는데 모두 여성이다. 그분들과 같이 텃밭 꾸리는 활동도 하는 중이다. 활동하면서 좋은 것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후 위기나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어떤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걸쳐져 있는 다른 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 여성 문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비건도 하고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요즘 활동을 하면서 느끼게 된 점이다.

Q |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하며 생긴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

A |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면서 생긴 변화 중 가장 큰 것은 주변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냥 스쳐 지나갈 법한 것들 하나하나에도 생각을 기울이게 된다. 내 생활과 소비 패턴을 스스로 잘 알고 조절할 힘이 생긴 것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유행 따라가듯이 누구나 다 한다고, 무조건 다 바꿔버리자고 급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려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Q | 운영상점이 계획하고 있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있다면 듣고 싶다.

A |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아름다운 가게 탄방점과 함께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다. 집에서 더는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물품이 있다면 기증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제로웨이스트가 추구하는 가치인 '순환'을 누구라도 편하게 실천할 좋은 기회라고 여겨진다. 그밖에 먼 생리대 만들기 모임과 같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소소한 커뮤니티를 늘릴 계획이 있다. 지역의 동 세대 청년들과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의 장도 열어보고 싶다. 제로웨이스트가 아직 낯선 청년들도 편하게 공부하고 대화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시도해보고 싶다. **W**



📍 대전유성구 대학로159번길 2 1층 📷 eunyoung_store

'편견의 말들' 온택트(On:tact) 전시회

우리 사회의 편견이라는 이슈를 주제로 시민들로부터 400여건의 편견 경험을 수집한 이야기를 작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사회의 일상 속 편견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온택트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기간 | 2021.03.02(화)~ 2024.03.02(토)



서울휴먼라이브러리

편견의 말들
편견, 가장 사소한 폭력

보랏빛 멍에



새 살이 돋다

@uos_wop2021
<https://wordsofprejudice.com>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